

碩 士 學 位 論 文

패션 트렌드에 따른 토탈 메이크업 경향

-2000년대 초반의 패션컬렉션을 중심으로-

2 0 0 4 年 12 月

漢城大學校 藝術大學院

패션 예술學科

분장예술專攻

金 美 貞

碩 士 學 位 論 文

指導教授 金 愷 秀

패션 트렌드에 따른 토탈 메이크업 경향

-2000년대 초반의 패션컬렉션을 중심으로-

2 0 0 4 年 12 月

漢城大學校 藝術大學院

패션 예술學科

분장예술專攻

金 美 貞

金 美 貞의 藝術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定함

2004 年 月

審査 委員長

印

審 査 委 員

印

審 査 委 員

印

국 문 초 록

패션 트렌드에 따른 토탈 메이크업 경향

-2000년대 초반의 패션컬렉션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패션을 의상에 국한시키지 않고 메이크업과 헤어 및 장신구에 이르기까지 패션의 산업으로 등용하여 자신의 브랜드를 어필하고 디자이너의 예술적 감각과 자신의 패션을 표현하는 총체적인 복식의 도구로서 부각시키고 있음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컬렉션에 나타난 패션경향에 있어 그 제반요소인 메이크업이 토탈 패션의 한 요소로서 자연스럽게 이해되고 제반 요소들 간의 상호 조화 속에서 패션 컨셉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독창적이고 자유로운 메이크업을 표현하는데 있어서 많은 아이디어 창출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문헌 연구를 통해 컬렉션과 트렌드, 그리고 패션 메이크업에 대해 이론적으로 고찰하였고 인터넷을 통해 이미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과거와 미래, 동양과 서양이 독특하게 재구성되어 나타난 에스닉 스타일과, 계속되는 포스트 모더니즘 사조의 영향으로 특별히 어떤 양식이 정해져 있지 않은 기하학적 형태와 첨단 소재를 이용한 퓨처리즘 스타일을 대표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낮설고 이국적인 멋을 추구하는 에스닉 패션은 아시아의 민속의상이나 아프리카의 원시적인 의상 등, 소박하고 전원적인 이미지를 표현하는 것이 특징이다.

에스닉 경향에 따른 메이크업 표현은 다민족의 특성을 표현한 매트하면서 창백한 피부, 그을린 황색 피부, 글로시한 피부, 분칠한 듯 흰 피부 등이 피

부표현으로 나타났다.

포인트 메이크업으로는 오리엔탈적 요소가 특징적으로 강한 아이라인, 붉게 강조된 치크, 붉은색의 작고 오염한 입술표현이 나타났다.

헤어와 액세서리는 동양적 스타일과 인디아, 이슬람 문화권, 아프리카 등 다민족의 다채로운 표현이 나타났다.

또한 21세기의 미래지향적 패션과 절충된 질감의 변형과 다양한 소재와 기법의 변화로 자율성과 괴이한 표현이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

2. 패션에서 퓨처리즘 경향은 기하학적인 형태와 비닐, 플라스틱, 알미늄, 형광섬유 등의 하이테크 소재를 이용한 실험적인 디자인이 그 특징이다.

퓨처리즘 경향에 따른 메이크업 표현은 깨끗하고 완벽한 피부를 표현한 내추럴 피부와 글로시한 피부, 인위적인 매트한 피부로 질감 표현이 주로 나타났다.

색조화장은 눈썹이나 얼굴 형태를 무시한 독창적이고 독특한 메이크업에 무채색 계열과 원색의 대비되는 색조가 대표적으로 나타났고, 대중성을 무시하고 실험적 요소가 강한 소재, 표현기법이 제시되었다.

헤어 및 액세서리는 기하학적이고 초현실적 스타일이 나타났으며 오리엔탈적 요소를 이용한 미래적 표현과 동물과 혼합된 변형 스타일의 표현이 특징적으로 나타났다.

<목 차>

I. 서 론	1
1. 연구목적	1
2. 연구내용 및 방법	3
II. 컬렉션과 메이크업의 이론적 고찰	4
1. 패션 컬렉션	4
1) 패션 컬렉션의 정의	4
2) 패션트렌드	8
3) 2000년대 초반의 패션트렌드와 뷰티트렌드	11
2. 패션 메이크업	16
3. 패션 경향에 따른 메이크업 표현	17
1) 낭만적 이미지	18
2) 자연적 이미지	19
3) 전통적 이미지	19
4) 복고 이미지	20
5) 민속풍의 이미지	21
6) 미래적 이미지	22

III. 에스닉과 퓨처리즘의 토탈 메이크업 경향	24
1. 에스닉	24
1) 피부표현	27
2) 색조화장	32
3) 헤어 및 액세서리	36
4) 변형 및 응용	41
2. 퓨처리즘	43
1) 피부표현	45
2) 색조화장	48
3) 헤어 및 액세서리	57
4) 혼합성과 초현실적 표현	60
3. 에스닉과 퓨처리즘의 토탈메이크업 특성의 비교분석	63
1) 피부표현 특성 비교	63
2) 색조화장의 특성 비교	63
3) 헤어스타일 및 액세서리의 특성 비교	64
4) 표현방법의 특성 비교	64
IV. 결론	66
참고문헌	69

ABSTRACT

<표 목차>

표1.	27
표2.	65

<그림 목차>

사진1. 매트하고 창백한 피부	28
사진2. 촉촉하고 글로시한 피부	29
사진 3. 분칠한 듯 흰 피부	30
사진4. 황색, 붉은 톤의 피부	31
사진5. 아이 강조	33
사진6. 치크 강조	34
사진7. 아이와 치크 연결	35
사진8. 아이와 립 강조	36
사진9. 땡은 머리	37
사진10. 올린 머리	37
사진11. 가부키 등 일본의 헤어	38
사진12. 고산지대 여성이나 기타 민족형 헤어	38
사진13. 터번 스타일	39
사진14. 뱅 헤어와 아프리카 헤어	39
사진15. 액세서리	40
사진16. 화전과 빈디 응용의 액세서리	41
사진17. 변형 및 응용메이크업	42
사진18. 내추럴한 피부	46
사진19. 글로시한 피부	47
사진20. 인위적인 매트한 피부	48
사진21. 무채색계열의 색조	49
사진22. 강렬한 원색	50
사진23. 차가운 계열의 색조	51
사진24. 펄과 글리터	52

사진25. 메탈 및 합성소재	53
사진26. 기타	53
사진27. 페인팅	55
사진28. 콜라주 및 오브제	56
사진29. 스텐실 및 타투	56
사진30. 소재를 응용한 헤어	57
사진31. 기하학적 및 초현실적 스타일	59
사진32. 액세서리	60
사진33. 오리엔탈리즘과의 혼합성	61
사진34. 동물 및 변형	62

I. 서론

1. 연구 목적

인간의 신체에 직접 행해지는 메이크업은 복식과 함께 인간의 근본적이 미적 욕구를 표현하는 수단으로 인간 생활의 시작과 함께 발생하여 점차 장식적인 의미가 부여되고 시대에 따라 차이를 보이면서 발전해왔다. 이러한 메이크업은 피부표면에 직접 행해진다는 제한성으로 다른 치장요소에 비해 그 표현방법과 형태의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20세기 전반의 메이크업은 산업화로 인한 화장품 공업의 발달과 잡지, 영화와 같은 대중매체의 발달에 힘입어 할리우드 여배우들이 이상적인 여성미의 기준으로 등장하면서 메이크업 경향을 주도하였고, 이러한 경향이 일반인들에 의해 그대로 모방되어 미적 형식에 있어서 획일화된 단면을 보여주었다.

특히 1990년대 후반 이후 패션컬렉션에 나타난 메이크업의 양상은 무제한적인 미의 수용으로 기존의 전통적인 미의 관념에서 벗어난 자유롭고 주관적인 개성표현과 미적 가치가 나타나고 있다.

또한 복식은 그 시대의 사상과 가치관, 미의식의 영향을 가장 많이 표출시키는 대표적인 예술이라고 할 수 있으며, 패션의 흐름이 토털 패션지향으로 부각됨에 따라 메이크업은 패션을 표현하는데 더욱 더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으며 메이크업과 패션의 조화는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다.

1990년대에 들어와 국내의 패션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디자이너의 의복형태, 직물, 문양, 색상, 장신구 등을 중심으로 의상 작품만 주로 다루고 있다. 특히 패션과 메이크업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며 현재 진행된

대부분의 연구는 기술적인 측면이나 역사적인 고찰에 관한 연구들이다. 따라서 패션 경향에 따른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까지 총괄적으로 접근한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또한 20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2000년대 초반은 사람들에게는 심리적으로 불안과 혼란과 더불어 미래에 대한 기대와 설렘이 동시에 교차되는 시기였다. 20세기 말 급부상한 컴퓨터는 쌍방향의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하면서 새로운 네트워크의 인터넷을 통한 일상생활을 바꾸어 놓았다. 미래에 대한 혼란과 불확실은 복고적인 경향과 동시에 신비한 동양적인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20세기 후반부터 문화현상을 대변하는 포스트모더니즘은 문화적 다원주의를 표방함으로써 모든 양식과 주제에 대한 열린 태도를 견지하여 다양한 요소를 단위 안에 혼합하며 물질적인 풍요보다는 마음의 풍요를 중시하게 되었다. 이에 정신적 세계에 대한 향수로 인해 과거와 미래, 동양과 서양이 독특하게 재구성되어 에스닉(Ethnic) 스타일이 등장하였고, 계속되는 포스트모더니즘 사조의 영향으로 특별히 어떤 양식이 정해져 있지 않은 기하학적인 형태와 첨단소재를 이용한 퓨처리즘(Futurism) 스타일이 대표적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목적은 2000년대 초반의 패션경향과 메이크업의 경향에서 에스닉과 퓨처리즘의 이미지를 추출하고 이를 연도별, 시즌별로 분석하여 패션 경향에 따른 메이크업의 표현방법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하여 메이크업이 토탈 패션의 한 요소로서의 자연스럽게 이해되고, 제반 요소들 간의 상호 조화 속에서 보다 더 발전된 양식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대중들과 직결되어 있는 총체 예술로서 인식되는 계기를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패션 컨셉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독창적이고 자유로운 메이크업을 표현하는데 있어서 많은 아이디어 창출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2000년대 초반의 패션컬렉션에 나타난 패션경향 중 에스닉과 퓨처리즘 패션을 대상으로 이들 패션경향에 나타난 토탈 메이크업 경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메이크업 및 헤어스타일에 관하여 연구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I 장에서는 본 연구의 목적, 연구 내용 및 방법을 밝힘으로써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제 II 장에서는 이론적 고찰로서 패션컬렉션과 트렌드, 패션 메이크업에 대해 고찰하였고 특히 2000년대 초반에 나타난 트렌드에 대해 제시하였다.

제 III 장에서는 2000년대 초반에 나타난 패션경향을 에스닉과 퓨처리즘으로 나누어 패션 이미지자료들을 분류, 제시하였고, 제시된 자료에 나타난 메이크업 및 헤어스타일 표현기법들을 분석하였다.

제 IV 장에서는 III 장에서 분석된 내용을 정리하여 결론으로 제시하였다.

연구 방법은 패션과 메이크업, 패션컬렉션과 관련된 선행연구와 관련 서적을 통해 이론적 고찰을 하였고, 대표적인 패션 컬렉션인 파리, 밀라노, 런던, 뉴욕 컬렉션의 인터넷자료, 패션잡지 등을 중심으로 패션경향에 따른 이미지를 각각의 표현방법에 따라 분류하고 그 특성을 제시하였다.

패션 이미지는 인터넷사이트 퍼스트 뷰¹⁾를 활용하였으며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을 분류, 분석하기 위해 얼굴 위주의 사진을 제시하였다. 이때 복식만으로 에스닉과 퓨처리즘 이미지를 보여준 패션컬렉션 및 디자이너의 작품은 제외하였다.

1) [http:// www.firstview. com](http://www.firstview.com)

II. 패션 컬렉션과 메이크업의 이론적 고찰

1. 패션 컬렉션

1) 패션 컬렉션의 정의

패션은 변화, 다양성, 경쟁 등의 욕구에 기초하며 사회의 구조, 기술이나 문화의 발달, 경제 및 정치적인 행사 등의 영향을 받는다. 과거의 패션은 다소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유지되었던 반면, 사회가 급변하고 다각화된 오늘날 패션의 변화는 매우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다.²⁾

패션 디자이너들은 디자인의 영감을 받아 유행경향을 파악하며 다가오는 시즌을 위하여 컬렉션을 통해 새로운 패션 디자인을 제안한다. 이러한 컬렉션은 패션의 움직임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대중들에 의하여 수용된다면 이것은 곧 패션이 된다. 이 때의 패션 컬렉션이란 디자이너나 의류회사가 특정 시즌을 겨냥해 만든 스타일과 디자인을 바이어들과 기자들에게 선보이는 일종의 ‘신작 발표회’로 정의되며 그 유형은 크게 오프 꾸뛰르(Haute Couture)와 프레타 포르테(Prêt à Porter)로 나뉘어진다.³⁾

오프 꾸뛰르란 최고급으로 만들어진 옷을 뜻하나⁴⁾, 패션업체에서 통용되는 의미는 각 꾸뛰르 하우스(couture house)의 소속 디자이너들이 독창적인 컬렉션을 발표하여 이를 개별적인 맞춤방식으로 주문·생산하는 꾸뛰르 하우스들의 집단을 말한다. 최초의 오프 꾸뛰르는 1858년 영국의 찰스 프레드릭 워드(Charles Frederic Worth)⁵⁾에 의해 파리에서 시작되었으며, 오프 꾸뛰르

2) Hannelore Eberle. Clothing Technology. 금기숙 외 역. 의류과학과 패션. 서울:교문사 1999. p196

3) 조규화. 『복식사전』. 서울:경춘사, 1995, p 519

4) 채금석. 『패션디자인 실무』. 서울:교문사, 1999. p 194

5) (1825-1895) 패션디자이너. 원래 링킨사에서 출생한 영국인. 프랑스에서는 「보르트」로 불리었다. 프랑스 제2제정기의 디자이너로 오프꾸뛰르의 창시자

의 작업정신은 정교한 봉제기술과 디테일의 완벽함이라고 할 수 있다.

프레타 포르테는 ‘바로 입을 수 있도록 준비된’이라는 의미는 프랑스어로 대량생산되는 기성복을 뜻하며, 정확한 의미는 전년도에 오프 꾸뛰르에서 발표된 것을 기성복 느낌으로 스타일을 고쳐서 일반 소비자들이 부담없이 입을 수 있도록 만든 고급기성복을 의미한다. 초기의 프레타 포르테는 오프 꾸뛰르의 부차적 존재로서 부티크 등에서 소규모로 선보였으나, 차츰 일반화되면서 오프 꾸뛰르의 재정적인 위기가 문제시되는 최근에는, 종래의 고급의상을 대신하여 프레타 포르테를 중요시하게 되었다. 점차 프레타 포르테가 정착되면서 재정적인 차원에서나 기술적인 차원에서 오프 꾸뛰르와 상호보완적 관계를 가지게 되었다.⁶⁾

유행의 선도 역할을 담당하는 국제적인 패션 컬렉션들은 전 세계에서 몇 개의 도시, 즉 파리, 밀라노, 런던, 뉴욕, 도쿄 등지에서 규칙적으로 개최된다. 패션 하우스와 디자이너, 기성복산업체에서는 매년 봄 · 여름, 가을 · 겨울 시즌에 컬렉션을 발표하는데 오프 꾸뛰르 패션 컬렉션은 시즌의 바로 앞에 임박하여 열리고, 기성복 의류산업의 경우에는 시즌의 6개월 앞서 개최된다.⁷⁾

이때에 세계의 디자이너, 제조자, 판매상, 그리고 패션기자와 같은 패션산업에 종사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패션아이디어의 자료를 얻기 위하여 모여들며, 관계자들은 패션 동향을 분석한다. 이때 경제적, 기술적, 정치적, 사회적 영향의 유사성 때문에 보통 대부분의 컬렉션은 유사한 경향으로 나타난다.

패션 예측자는 ‘예언적 스타일’이라고 불리는 디자이너 컬렉션에서 그 시기의 모드를 사로잡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분석하며, 만약 영향력 있는 몇몇

6) Gini Stephens Frings. *Color, Environment, and Human Response*. 최승희 외 역. 서울 : 국제 1994, p147

이호정. 『패션디자인』. 서울:교학사, 1999, p182

7) Hannelore Eberle. *Clothing Technology*. 금기숙 외 역. 의류과학과 패션. 서울:교문사 1999. p196

의 디자이너가 유사한 아이디어를 주장하며 똑같은 자극에 반응을 할 때 패션경향이 제시된다.⁸⁾

이와 같이 패션 컬렉션은 디자이너들의 예술적 역량을 펼쳐 보이는 창작의 장으로서의 의미와 함께, 다가올 시즌이나 연도의 세계적인 패션 트렌드 방향설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며, 아울러 주력 패션 트렌드를 결정하는 지표가 된다.⁹⁾

(1) 파리 컬렉션

패션은 프랑스의 경제 분야 가운데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파리 컬렉션은 100여 년에 달하는 오랜 역사와 함께 세계의 패션을 주도하고 있다.¹⁰⁾

파리 컬렉션은 크게 오프 꾸뛰르와 프레타 포르테 컬렉션 및 남성복 컬렉션(Salon International de l'Habillement Masculin)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 가운데 파리지와 파리의상조합연합회(Chambre Syndicale de la Couture Parisienne)가 주최하며 최신 여성 기성복을 가장 신속하게 선보이는 프레타 포르테는 전 세계 가장 많은 패션 관계자들이 모여드는 세계 최고의 권위와 전통을 자랑하는 컬렉션이다. 3월과 4월에 가을/겨울(F/W)컬렉션이, 10월에 봄/여름(S/S)컬렉션이 개최된다.

프랑스 패션은 우아함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며, 풍부한 감성, 전통적인 장인기술, 섬세한 바느질, 화려함, 고급스러운 품질을 특징으로 하는, 새롭고 혁신적인 세계 패션의 중심역할을 한다.

8) RFL. 『패션산업정보』. 서울; RFL. 2000, p143

9) 안병기. 『패션트렌드 정보기획론』. 서울:학문사. 2000, p150

10) Gini Stephens Frings. *Color, Environment, and Human Response*. 최승희 외 역. 서울 : 국제 1994, p146

(2) 밀라노 컬렉션

이탈리아 패션은 미국 패션과 함께 매우 대중적이며 프랑스 패션보다 캐주얼하다.¹¹⁾ 이탈리아의 패션 산업은 관광산업에 이어 가장 큰 국가 산업이며, 파리 패션계의 강한 도전을 하고 있다. 이탈리아 패션의 장점과 우위적 경쟁 요소는 우수한 직물 디자인, 정교한 봉제, 실용적인 니트웨어와 스포츠웨어 그리고 고품질의 가죽 액세서리 등을 들 수 있다.

초기 이탈리아 기성복 컬렉션은 플로렌스에서 개최되었으나 1970년대 중반부터 밀라노에서 컬렉션을 열기 시작하였다. 밀라노 컬렉션은 프랑스 파리의 프레타 포르테가 시작되기 전 3월말 경에 F/W 컬렉션이, 9월말이나 10월 초 경에는 S/S 컬렉션이 개최 된다.¹²⁾ 밀라노 컬렉션의 특징은 창의성과 실용성의 조화이며, 무엇보다 디자인의 창의성을 대량생산에 접목시키려는 노력이 탄탄한 기반을 이루고 있다.

(3) 런던 컬렉션

영국패션협회(British Fashion Council)에서 주최하는 런던 컬렉션은 3월과 10월에 개최되고 있다.

런던 컬렉션은 파리와 밀라노의 우아한 패션과는 다른 실험정신이 강한 아방가르드 디자인이 많이 선보이고 있다.

영국 패션의 특징적인 이미지는 버버리와 신사복, 비틀즈, 글램(Glam) 록, 펑크(Punk)로 대표되며, 이는 정통적인 귀족 문화와 과격적 돌발성이 혼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특히 90년대 디자이너들의 과격적이고 극단적인 스타일이 세계 패션계에 주목을 받으면서 영국 패션은 자연스럽게, 60년대부터

11) Gini Stephens Frings. *Color, Environment, and Human Response*. 최승희 외 역. 서울 : 국제 1994, p148

12) A.Jarnow, Jeannette, Guerreiro, Miriam&Judelle, Bwatrice. *Inside the Fashion Business* 『복식산업론』. 김문숙 옮김. 서울 :경춘사. 1991, p117

이어진 반향적이며 비주류적인 창의성의 표상으로 굳어졌다.

(4) 뉴욕 컬렉션

뉴욕 컬렉션은 매년 4월과 10월에 열린다. 뉴욕섬유패션진흥협회(New York Fashion Council)에서 주최하는 이 컬렉션은 뉴욕시와 패션과 영화부분 대기업의 후원을 받고 있다.

뉴욕 컬렉션은 전반적으로 유통 지향적이고 연예, 광고 산업과의 연대로 흥행성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파리나 밀라노 컬렉션에 비하여 실험성이 다소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미국인의 실용정신은 잘 반영되고 있다.¹³⁾

활동적이며 적극적인 미국여성의 라이프스타일에 적합한 캐주얼하고 편안하면서도 기능적인 의복을 만들어 낸 것이 오늘날의 아메리칸 룩이며, 단순하고 세련된 아메리칸 스타일의 패션은 전 세계적인 패션에 영향을 주고 있다.

2) 패션 트렌드

트렌드(Trend)의 사전적 의미는 ‘경향’, ‘방향’, ‘움직임’, ‘추세’, ‘조류’ 등으로 해석된다. 트렌드는 대체로 이전과는 다른 경향과 방향성을 의미하며, 트렌드란 말속에는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세 가지 시제가 복합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과거의 경향과 현재의 현상에 대한 세심한 관찰을 통해 트렌드를 파악하고 이러한 트렌드를 확인하고 분석함으로써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새로운 트렌드가 크게 확대되어 상식으로 통할 무렵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트렌드를 인지하게 된다. 그러나

13) 채금석. 『패션디자인 실무』. 서울:교문사, 1999. p 245

이때는 모든 사람이 그 사실을 알게 되어 특별히 유용한 정보나 지식으로 활용할 수는 없다.

오늘날 사회의 제반현상들은 각 분야별로도 나름대로의 트렌드가 있으나 복식의 변화와 관련된 트렌드 즉 패션 트렌드가 모든 트렌드에 앞서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고 있다.

패션 트렌드의 사전적 정의는 ‘파리의 오프꾸뛰르나 프레타포르테의 컬렉션, 기타 각국의 유력한 상품의 견본시장, 일시적인 유행 등에서 볼 수 있는 패션의 새로운 경향’이다. 다시 말하면, 패션 트렌드는 현재, 그리고 가까운 미래에 유행하거나 유행하게 될 전체적인 패션경향을 말하며, 패션에 있어 보여지는 움직임의 방향과 다가올 시즌에 널리 퍼질 스타일의 특성이며, 궁극적으로 일반 소비자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경향이다.¹⁴⁾

패션이 생활전반의 반영인 것처럼 패션 트렌드는 국내외의 사회정세는 물론 인간의 의식주에 관련된 모든 분야에 걸쳐 나타나는 패션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환경적인 요인과 더불어 소비자의 가치관과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에 따라 패션 트렌드가 형성된다.¹⁵⁾

트렌드는 시대와 사회에 따라 속도의 차이는 있으나 심리적 원인과 사회적 원인이 함께 작용하여 끊임없이 변화되어 왔다. 변화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밀어내고 대중의 선택을 받으며 또 다른 새로운 것에 의하여 밀려나는 과정의 연속을 말한다. 따라서 항상 다른 어떤 새로운 것 엄밀히 말해 새롭게 인식되는 것의 연속적인 출현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은영¹⁶⁾에 의하면 그 변화의 패턴은 다섯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한 방향으로 패션 트렌드가 결정되면 유행 스타일은 그 경향을 따라 서서히 짧아지기 시작한 스커트가 1960년대 미니 스커트의 출현과 함께 지속적으로 짧아져서 1970년에는 초미니스커트가 유행하였다. 이러한 점진적 변화는 급진적 변화보다 대중

14) 김수윤. 「1990년대 전반 패션 컬렉션에 나타난 색채 특성」,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1, p10

15) 안병기. 『패션트렌드 정보기획론』. 서울:학문사. 2000, p133

16) 이은영. 『패션마케팅』. 서울:교문사, 1995, pp 65-71

의 호응을 쉽게 얻어 새로운 유행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둘째, 유행 경향에 맞추어 이루어지는 점진적 변화는 극단에 이르도록 계속되며 더 이상의 진전이 불가능한 극단에서 끝이 난다. 셋째, 한 방향으로 점진적인 변화한 유행은 경향의 극단에 이르렀을 때 다시 반대로 후진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스커트의 길이가 점차 짧아져서 극단에 이르러 초미니가 된 후에, 새로운 유행의 경향이 초미니에서 시작하여 점차 길어지는 방향으로 후진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넷째, 유행 경향을 따른 점진적 변화가 극단에 이르면 무엇인가 새로운 경향을 찾아야 하는 전환점에 이르게 됐을 때 새로운 경향이 결정되기까지의 과도기 혹은 경향의 출발점으로서 클래식 스타일이 나타난다. 1970년대 전후에 초미니스커트의 유행 후에 나타난 미디, 맥시, 미니 스커트는 유행을 하지 못하고 잠시 팬츠 수트가 유행을 하다가 가장 클래식한 길이의 샤넬 라인이 유행의 출발점으로 제시되어 대중의 큰 호응을 얻었다. 다섯째, 의복 각 부분의 상호 관련성이 있다. 유행의 기본은 실루엣이며 실루엣은 여러 부분이 합쳐져 이루어진다. 조화로운 실루엣을 위하여 각 부분, 즉 선, 형, 면, 여백을 비롯한 색채와 재질까지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결정되어야 하며, 간혹 전체의 조화를 무시하고 의복의 일부분이 유행의 중심이 되는 경우는 패드(fad)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의 의류상품은 1년에서 최소 6개월 전에 상품개발 및 디자인기획을 마치게 된다. 따라서 다음 시즌에 다가올 패션 트렌드에 대해 정확하게 정보를 입수하고 분석하여 자사 상품개발에 참고해야만 경쟁우위 상품을 시장에 내놓을 수 있다. 매 시즌마다 선보이는 다양한 트렌드 정보 분석 요소로는 패션산업을 둘러싼 그 시대의 사회현상과 풍조를 의미하는 전체적인 경향을 비롯하여, 패션 테마와 이미지 경향, 스타일 경향, 소재 경향, 색채 무늬 경향, 실루엣과 디테일의 경향, 아이템의 경향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각 요소의 종합적인 분석을 통한 적절한 선택적 응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¹⁷⁾

17) 안병기. 『패션트렌드 정보기획론』. 서울:학문사. 2000, pp 143-146

매 시즌마다 발표되는 컬렉션에서는 디자이너들 간의 유사한 경향이 나타나며 우리는 주로 이것을 패션 트렌드로 받아들이는데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음 해를 위해 중요한 스타일 변화를 계획할 때 디자이너들이 함께 모여서 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있다. 그러나 의류산업은 고도의 경쟁적 산업으로 각 디자이너마다 새로운 컬렉션들을 극비로 취급하여 보호한다. 따라서 각각의 디자이너의 컬렉션에서 나타나는 유사성은 그들이 같은 환경에서 같은 광경을 보고 같은 직물 컬렉션을 참고하며 같은 출판물들을 읽기 등 이처럼 그들이 사는 시대정신에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¹⁸⁾

그러므로 하나의 새로운 스타일이 유행으로 성공하려면 그 당시의 시대정신의 상징을 그 옷에서 볼 수 있어야한다고 할 수 있다. 경쟁력 있는 성공적인 패션산업을 이끌기 위해서는 무수히 많은 트렌드 정보를 무조건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시대적 흐름 즉 사회적 트렌드의 분석을 통한 패션 트렌드의 기획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3) 2000년대 초반의 패션 트렌드와 뷰티 트렌드

(1) 2000년

새천년을 맞이하면서 패션디자이너들은 많은 것에서 디자인의 영감을 얻었다. 중세부터 미래, 시골 농가에서 사이버 스페이스에 이르기까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다양한 스타일을 제시하였고, 인디언이나 아이슬랜드적인 모티브, 시크하게 변모한 보헤미안, 여성스러운 장식의 로맨티시즘과 70년대의 록스타를 연상시키는 섹시한 글램 록, 그리고 이렇게 다양하게 수집된 많은 아이디어들을 서로 혼합시키고 변형하여 동양과 서양, 과거와 미래가 미묘하게 혼재된 새로운 록을 탄생시켰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패션에서 실험성이 강한 도시인 런던에서는 철학적인

18) Horn & Gurel. 『제2의 피부』. 이화연 외 옮김. 서울:까치, 1992, pp261-262

아방가르드, 새천년을 위한 로맨티시즘과 고도의 테크놀로지 디자인이 절충된 조화된 스타일을 보여주었다. 뉴욕의 디자이너들은 테크노 스포티즘이 가미된 내추럴하고 섬세하며 페미닌한 디자인을 선보였다. 밀라노는 새롭게 해석된 페미니즘을, 화려한 컬러의 옐로우와 레드, 페일 핑크, 소프트 퍼플, 비비드 블루 등으로 표현하였다. 한편 파리에서는 로맨틱과 에스닉 무드가 강조된 노스탤직한 분위기가 주를 이루었고, 과거에서 미래의 해법을 찾는 듯한 고딕 스타일과 함께 80년대 스타일이 반짝이는 글래머 룩으로 나타났다.

신선하게 표현된 메이크업, 경쾌하고 짧은 커트 머리와 함께, 메이크업에는 핑크, 블루, 오렌지, 그린과 같은 총 천연색 쉼도우들이 다시 등장하였고, 헤어 컬러도 그 어느 때보다도 다채로워지기 시작했다. 이 같은 스타일들은 때 맞춰 등장한 스포티즘과 함께 발랄한 새로운 세기의 여성상을 표현해냈다.¹⁹⁾

(2) 2001년

2001년에는 다이너스티를 테마로 하여 50년대와 80년대 스타일이 더 실용적이고 안정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시즌 리바이벌된 것 중 중요한 테마는 밀리터리 룩이었다.

F/W 시즌의 소재에서 두드러지게 사용된 것은 체크와 트위드 등이었고, 블랙과 화이트의 그래픽 프린트는 여름 소재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응용되었다. 이와 함께 여성스러움이 느껴지는 프릴과 코사지, 비즈, 아플리케 등의 낭만적인 요소들도 중요하게 사용되었으며, 골드로 장식된 다양한 아이템들이 주목받았다.

2001년 접어들면서 뷰티업계에서는 새로운 세기의 여성스러움은 나약하거나 의존적이지 않은 강한 여성성을 강조하였고, 그 결과 핑크·바이올렛·퍼플 등의 강렬한 페미닌 컬러가 유행하기 시작했고, 굵고 짙은 눈썹이 아치형 눈썹의 대안으로 제시되었다.²⁰⁾

19) 바자, 보그. 2000

20) 바자, 보그. 2001

(3) 2002년

미국에서 9·11 테러가 일어났던 2002년에는 많은 디자이너들이 한번도 가보지 못했을 범한 멀고 이국적인 나라에서 영감을 얻은 스타일을 많이 제안하였다. 북아프리카의 카프탄(caftan)룩에서 영감을 받은 드레스를 소녀풍으로 또는 성숙한 여인의 분위기로 표현하였고, 또한 마사이족의 조개와 가죽벨트와 귀고리, 목걸이 등 환상적인 느낌을 담은 컬렉션도 적지 않았다.

뉴욕이나 밀라노 컬렉션에 비해 파리 컬렉션에서는 특히 에스닉의 경향이 두드러졌다. 이 시즌은 크게 두 가지 스타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로는 중동스타일이다. 중동과 아프리카 스타일을 스웨이드와 천막용 면 소재를 사용하여 특유의 모던하고 섹시한 감성으로 선보였고 중동과 모로칸의 이국적인 문양과 색상이 많이 사용되었다. 두 번째 스타일은 사랑스럽고 루즈한 스타일이었다. 특히 발레리나 룩(ballerina look)은 많은 디자이너에게 영감을 주었고, 반전시위를 하며 평화를 외쳤던 히피 스타일을 테마로 한 디자이너도 많았다.

가장 두드러졌던 컬러는 화이트였으며 핑크·옐로·그린도 많이 나타났다. 소재는 시폰, 면과 레이스가 많이 사용되었고, 중동 스타일의 영향으로 포클로어 스타일의 자수와 비즈 장식, 편칭²¹⁾장식 등이 많이 사용되었다.

헤어와 메이크업은 패션계의 대표적 트렌드였던 네오 로맨티시즘의 영향으로 엔젤 룩(angel look)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페일 톤의 파스텔 컬러 메이크업 제품들이 크게 인기를 얻었고, 여성들의 헤어는 스트레이트나 웨이브에 관계없이 어깨를 넘는 ‘롱 헤어’가 많이 나타났다. 또한 계절, 나이, 성별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다양한 트렌드들이 혼합되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과거에 대한 향수로 뷰티업계 전반에는 복고풍의 클래식 헤어와 메이크

21) 소재에 꽃모양 등으로 구멍을 뚫은 디테일

업이 나나났고 이러한 영향으로 디스코와 히피로 대표되는 70년대 풍의 패션 트렌드가 다시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였다.²²⁾

(4) 2003년

2003년 패션 컬렉션의 중심어는 경제적으로 유행했던 60년대 스타일과 3차 대전이 일어날 것이라는 공포로 인한 미래 세계를 상상하게 하는 스페이스 룩이었다. 이렇게 전혀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두 가지 주제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것은 기하학적인 지오메트릭 라인과 패턴, 직선적이고 미니멀한 실루엣이었다.

60년대를 주제로 한 패션 컬렉션의 특징은 아방가르드하면서도 클래식한 꾸레주 룩에서 비롯되었다. 60년대를 대표하는 컬러인 화이트·블루·레드 혹은 오렌지 컬러의 조화가 두드러졌다. 그리고 미래 세계를 그린 영화 [가타카]나 [2002 스페이스 오디세이]에서 보여지는 룩처럼 간결하면서도 몸매를 드러내는 실루엣과 블랙과 화이트, 그레이 등의 뉴트럴 컬러가 선보였다. 소재로는 실크 타프타와 펠트 가공한 플란넬 소재들을 사용하여 미니멀하면서도 피트된 스타일을 표현하였다.

디테일로는 주먹만큼 커진 단추를 달거나 혹은 모든 단추를 없애고 지퍼로 바꾼 것이 눈에 띄었다.

특히 F/W 시즌에는 미니스커트가 대유행하였다. 그리고 이와 함께 유행된 트렌드로는 남성복에서 받은 영감을 여성복으로 도입시킨 스타일과 클래식 스타일로 귀환이라고 할 수 있었다.

2002년부터 계속된 레트로의 유행으로 2003년에도 60년대 스타일의 부풀린 머리와 과장된 아이 메이크업이 큰 인기를 얻었다. 60년대를 풍미한 모델 트위기의 모습이 패션컬렉션과 패션화보에서 재현되었으며, 화장품제조업체들은 60년대 팝 아트 스타일의 디자인이 가미된 메이크업 제품을 출시하기도 하였다. 특히 가장 주목받았던 헤어스타일로는 뱅헤어 스타일을 들 수 있

22) 바자, 보그, 2002

다.²³⁾

(5) 2004년

미국의 계속되는 테러의 위협과 계속되는 경제 불황을 극복하고자 많은 패션 디자이너들은 화사한 컬러들을 사용하여 희망을 표현하였다. 2004년 패션 컬렉션에서는 지오메트릭 프린트와 화려한 색상의 도입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특히 가장 현대적인 색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애시드 컬러(acid color)가 강조색에서 프린트물의 주조색으로 선보였다.

화려한 색상과 함께 대표적인 스타일 중 하나는 바로 스포츠 룩이었다. 심플한 디자인과 멀티컬러의 조화로 클래식하면서도 캐주얼한 이미지를 나타내었다. 또한 대표적 트렌드인 레트로 페미니즘이 전반적으로 여성스럽고 성숙한 스타일로 전개되었다.

소재에 있어서는 두드러진 트렌드인 웨스턴 스타일과 함께 해지 데님과 리넨, 거즈가 어느 때 보다 많이 소개되었다. 그 밖에도 실크시폰, 저지 등의 소재들이 각광받았다. S/S 시즌 패션 컬렉션에서는 이례적으로 스웨이드, 뱀피, 악어 등의 에조틱한 가죽도 많이 사용되었고 모피와 롱 부츠도 그 어느 때보다 많이 등장했다.

F/W 시즌에는 블랙·브라운·와인·네이비 등 차분하고 어두운 컬러가 두드러지게 나타났고, 패션의 키워드는 복고풍의 빈티지 스타일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디자이너들이 레이디 라이크 룩(lady like look)과 클래식 이미지의 디자인을 많이 발표하였다.

2003년의 뱅 스타일의 롱 헤어는 다시 레이디 라이크 룩의 유행에 따라 틀어 올린 머리로 바뀌었다. 또한 정숙한 숙녀의 스타일을 표현하기 위해 리퀴드 파운데이션과 레드 립스틱의 메이크업이 많이 사용되었다. 그리고 2004년 F/W 시즌에는 레이디 라이크 룩과 앤드로지너스 룩(androgynous look)이 결합된 프리티 보이 룩(pretty boy look)이 나타나 여성스러우면서도 남성적이

23) 바자, 보그, 2003

고, 연약하면서도 강인한 매력이 결합된 크로스 오버 트렌드가 새로운 트렌드를 형성하였다.²⁴⁾

2. 패션 메이크업

메이크업은 페인팅(Painting), 토일렛(Toilet), 드레싱(Dressing), 또는 프랑스어의 마꾸아쥬(Maquillage)등으로 표현되며,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화장으로 번역된다.

‘메이크업’이라는 용어가 최초로 사용된 것은 17세기 초 영국의 시인 리처드 크라슈(Richard Crashou)에 의해서였고, ‘페인팅’이라는 용어는 셰익스피어의 희곡에서 처음 등장하였다. 메이크업은 16세기에 이탈리아에서 전래된 짙은 화장을 가리키는 것에서 유래하였고, ‘토일렛’은 트왈렛뜨(Toilette)가 1540년경 영국에 전해지면서 변한 말로서 화장을 포함한 전반적인 치장을 의미하며, ‘마꾸아쥬’는 분장을 의미하는 연극용어에서 유래하였다.²⁵⁾

메이크업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화장품을 얼굴 따위에 바르고 매만져 곱게 꾸미는 것으로 인간 신체의 일부분에 색상이나 질감을 부여함으로 얻어지는 외형적 아름다움의 추구행위를 말한다. 즉, 메이크업은 한 개인의 장점을 한층 돋보이게 부각시키고 결점을 감추어 아름답게 표현할 뿐만 아니라 미의식 속에 자아를 하나의 개성으로 표현하는 창조적인 작업이라 할 수 있다.

현대에 이르러 메이크업은 주제에 따라 여러 기법을 사용하여 재료 등에 구속받지 않고 인간의 육체에 새로움을 추구하여 인체를 디자인한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며 그 방법 또한 다양하여 눈, 코, 입의 형태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점에서 내적 정신과 외적 감각으로 창조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²⁶⁾

24) 바자, 보그. 2004

25) 조은별. 「20세기 화장문화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26) 양진희. 「현대 메이크업에 나타난 레트로 경향」. 건국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특히 패션 메이크업은 메이크업에 패션성, 유행의 의미를 부여한 것으로 단순히 얼굴만 아름답게 꾸미는 차원이 아니라 의상, 헤어스타일, 액세서리 등 토탈 패션의 한 요소로서 자신의 가치관, 기호, 상황 등을 표현하는 도구이며, 자신이 속한 사회, 문화와의 교류를 의미하는 차원으로 확대시킨 개념이라 할 수 있다.

패션 컬렉션에는 그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미의식을 표현하는 트렌드가 있으며, 그것은 패션 컬렉션의 의복과 메이크업을 통해서 표출된다.

패션 컬렉션에서의 메이크업은 무대 메이크업이라 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패션 컨셉에 따라 색상과 선을 결정하고 무대의 성격과 소품, 음향, 조명의 효과까지 고려하여 패션 컨셉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패션 컬렉션 메이크업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전체적인 조화를 고려한 질서 있는 아름다움이라 할 수 있다.

현대 패션 컬렉션 메이크업의 표현 경향은 모델을 아름답게 만드는 메이크업에서 벗어나 패션 컨셉에 따라 얼굴을 하나의 표현의 장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두드러지며, 더욱더 다양한 양상으로 발전되고 있다.

3. 패션경향에 따른 메이크업 표현

오늘날의 패션은 다른 어느 시기보다도 다양하고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패션의 전반적인 경향은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은 여러 가지 트렌드들이 공존, 복합, 다중화 되거나 또는 변형되어 존재하고 있다. 여기에 메이크업은 의복과 어울리게 하면서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룬 하나의 이미지가 형성된다. 따라서 새로운 이미지를 창출하기 위해서 기존의 메이크업 방법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이미지에 부합되는 메이크업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이 마치 의복에 있어서 새로운 패션스타일을 시도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하겠다.

패션 컬렉션에 나타나는 패션 이미지는 매우 다양하지만 메이크업 이미지와 연결되는 대표적 이미지로는 로맨틱 이미지(romantic image), 자연 이미지(natural image), 클래식 이미지(classic image), 복고 이미지(retro image), 민속풍의 이미지(ethnic image) 및 미래적 이미지(futurism image) 등을 들 수 있다. 토탈 패션개념으로 이들 각각의 패션이미지와 각 이미지에 따르는 메이크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낭만적 이미지

공상적이며 꿈을 쫓는 듯한 여성스러운 분위기로서, 귀엽고 사랑스러우며 소녀적인 느낌의 패션을 말한다. 주로 부드러운 질감의 꽃무늬와 민속풍의 기하학적 무늬를 사용하며, 색상에 있어서도 화려하고 산뜻한 색상이나 열대 지방의 감미로운 색조를 사용한다. 이러한 디자인에 프릴이나 레이스 장식 및 감각으로 표현된 장식적인 부분을 사용하면 소녀적 취향을 느끼게 한다.

낭만적 이미지에는 ‘향수의, 순수한, 환상적인, 여성스러운, 부드러운, 젊은’ 등과 같은 분위기의 패션이 포함된다.

낭만적 이미지의 연출을 위해서는 귀여운 이미지 연출방법에 기초하여 전체적으로 부드러움에 초점을 두어 어느 한 곳을 강조하지 않는 메이크업을 한다. 이를 위해서 파스텔 색상으로 메이크업을 하여 준다. 피부표현은 투명하고 밝게 하여 주고 얼굴의 각 부위를 모두 둥글게 처리한다. 장미꽃과 같은 입술과 볼화장을 둥글려주고, 눈썹은 도드라지지 않게 밝은 브라운 컬러로 둥글게 윤곽을 살리고, 눈화장은 파스텔 색조 혹은 선명하거나 뿌연 느낌의 와인, 핑크, 피치 컬러 등을 사용하여 전체적으로 둥근 느낌으로 어둡지 않게 메이크업을 한다. 입술은 선을 강조하지 않고 립글로스를 덧발라 촉촉한 분위기를 살린다.²⁷⁾

27) 김수진, 한명숙. 「밀레니엄을 맞이하는 1990년대 패션과 메이크업의 경향」. 복식문화연구, 1999, p88

즉 낭만적 이미지의 메이크업은 색상에 있어서는 보색의 조화보다는 유사색의 조화나 동일색의 조화를 추구한다.

2) 자연적 이미지

몸을 구속하지 않는 편안한 실루엣으로, 가공되지 않은 천연 소재를 사용하여 자연미를 강조하는 패션이다. 생태계를 보호하고자 하는 사회인식의 변화에서 시작된 패션으로서 자연스러운 멋을 내기 위한 실루엣이나 천연의 소재를 사용함으로써 전통적 감각의 신선한 여성미를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그 특징이다. 이 이미지는 자연에서 나타나는 모든 색상으로 구현해 낼 수가 있다. 자연적 이미지의 패션은 믹스 매치로 표현되는 바지 위에 긴 재킷이나 긴 베스트를 조화시켜 입음으로써 자연스러움을 표현한 디자인들이 주를 이루는데 에콜로지, 원시 등의 분위기가 여기에 속한다.

자연적이고 따뜻함을 느끼게 해주는 건강함과 활발함을 나타내는 자연적 이미지를 구현하기 위한 메이크업은 다음과 같이 한다. 그을린듯한 피부표현에 눈을 강조하며 전체적인 선을 수평적인 직선 ‘일자형의 눈썹’으로 그려준다. 눈화장은 자연스러운 색상으로 음영만 준다. 입술은 립글로스로 윤택함을 느끼게 하여주고 립라이너로 입술윤곽을 살짝 표현한 후 눈화장의 색상과 유사한 중간 색조의 색상 혹은 약간 어두운 색조로 전체적으로 칠해 준다. 입술을 강조하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하다. 눈썹은 자연스럽고 짙고 넓게 수평으로 그려주고, 볼화장은 오렌지 계열색상을 수평으로 넣어준다.

자연적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유사색의 조화 및 동일색의 색 조화를 이용하면 자연스러우면서도 활동적인 생기에 넘치는 이미지가 연출된다. 오렌지계열 및 브라운계열의 색상이 이 이미지의 주조 색상이다²⁸⁾.

28) 상계논문. p89

3) 전통적 이미지

시대를 초월하는 가치와 보편성을 지닌 고전적이고 전통적인 의상들이 나타내는 이미지를 전통적 이미지라고 부른다. 성공이나 부를 나타내 주는 이러한 이미지는 유행에 관계없이 장기간 지속적으로 입혀지는 특정한 스타일의 의상으로서 테일러드 슈트, 샤넬 슈트, 카디건, 진 바지 등이 그 대표적인 것이다. 우아한, 보수적인, 전통적 분위기가 이러한 이미지에 속한다.

전통적 이미지는 시간을 초월한 개념이므로, 메이크업 역시 가장 일반적이면서도 무난한 것이면 된다. 이미지를 가장 잘 대표하는 색채는 어떤 시기에도 없어지지 않고 무난하게 지속되고 있는 브라운계열의 색상이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메이크업한다. 즉 밝고 뿌연 피부표현에 깨끗한 라인 등으로 마무리하면서 눈썹, 볼, 입술 등을 강조한다. 아치형, 각진형, 기본형의 눈썹을 그리되 너무 극단적으로 두껍거나 얇거나 둥글리지는 않는 것이다. 볼화장은 직선으로 넣어주고 입술은 립라이너로 깔끔하게 그린 후 중간 색조의 색상으로 발라주고 눈화장은 기본적인 처리만 해주고 아이라인은 깔끔하게 그려준다.²⁹⁾

4) 복고 이미지

현재의 삶에 대한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으로 과거에 대한 향수와 함께 지나간 것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지나간 시대의 패션을 지금의 기호와 취향에 맞게 재수정 하는 복고풍이 유행되었고, 이런 패션은 레트로 룩이라 부르며, 이는 과거에 대한 향수를 담은 노스텔직 패션과 동의어로 쓰이기도 한다.

패션에서의 복고주의 시대적 양식의 융합으로 한 스타일 안에 여러 시대가 동시에 재현되며 현대적인 방향성을 띠고 등장한다. 다만 복고적 요소는 단

29) 상계논문. p89

순히 역사적 내용의 차용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미지 차용을 특징으로 한다. 현대 패션의 복고풍의 의상은 고대 복식에서부터 중세, 르네상스, 바로크, 로코코에서 19세기, 20세기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세기를 의상의 테마로 삼고 있다.

메이크업에서의 복고주의는 단순히 과거에 유행한 메이크업 스타일의 재현을 뜻하기도 하지만 과거를 응용하거나 새롭게 변화시켜 표현한 메이크업도 포함된다. 복고적 패션에 표현된 메이크업을 살펴보면, 내추럴한 메이크업보다는 인위적이고 화려한 메이크업이 두드러지는 경향이 있다.

시대적으로 유행한 메이크업을 살펴보면, 20년대 클라라 보우(Clara Bow)의 창백한 얼굴, 검게 화장한 게슴츠레한 눈 그리고 빨간 앵두 입술, 30년대 그레타 가르보(Greta Garbo), 마를린 디트리히(Marlene Dietrich), 진 할로우(Jean Harlow) 등의 가는 눈썹과 선명한 붉은 입술, 40년대 잉그리드 버그만(Ingrid Berman), 리타 헤이워드(Rita Hayworth) 등의 눈을 강조하는 화장, 50년대 오드리 헵번(Audrey Hepbern)의 굵게 강조된 눈썹, 60년대 브리짓트 바르도(Brigitte Bardot)의 인조 속눈썹과 반짝이는 핑크빛 입술 등이며 이러한 과거의 스타일들이 패션 컨셉에 따라 다양하고 자유롭게 표현된다.³⁰⁾

5) 민속풍의 이미지

유럽을 제외한 세계 여러 나라의 민속 의상과 민족 고유의 염색, 직물, 문양, 자수, 장신구 등에 영감을 얻어 디자인한 패션을 민속풍이라고 부른다. 종교적 의미가 가미된 경우가 많으며 토속적이며 소박한 느낌을 주는 패션이다. 민속풍 디자인에 영감을 준 대표적인 것으로는 중동의 종교의상, 잉카의

30) 김교회. 「패션경향에 따른 메이크업에 관한 연구」.대구카톨릭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p23

양진희. 「현대 메이크업에 나타난 레트로 경향」. 건국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pp6~13

기하학적인 문양, 인도네시아의 바틱, 인도의 사리 등이다. 민속풍의 이미지에는 동양, 이국풍, 열대 등의 분위기를 나타내는 패션이 포함된다.

동양적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동양적 느낌의 유형과 색상을 사용하는데, 붉은 색상으로 대표되는 동양풍의 메이크업이 주변 환경에 가치를 부여하는 형태로 나타난 것이다.

메이크업은 하얀 피부표현과 함께 검정 눈썹과 붉은 입술, 눈, 볼이 주조를 이루게 하는 것이 경향이다. 눈썹은 각없이 완만한 곡선으로 그리며 눈매는 비스듬하게 그린다. 눈화장의 색상은 동양의 느낌을 자아내는 골드, 옐로, 레드 등이다. 입술은 짙은 레드, 와인 등의 색상을 바른 후 윤기있게 처리해준다.³¹⁾

6) 미래적 이미지

패션에서의 미래주의는 기하학적인 형태와 하이테크풍의 소재를 들 수 있으며, 앙드레 쿠레주(Andre Courreges)는 60년대 우주와 미래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1968년 우주복 컬렉션에서 비닐, 플라스틱, 알루미늄 등의 실험적 소재를 사용한 의상들을 발표하였는데 이러한 디자인은 미래적인 느낌과 함께 주로 밝고 생생한 컬러나 시원한 샤넬 컬러 등을 사용하고 줄무늬 등을 많이 사용하여 활동성을 느끼게 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파코라반(Paco Rabanne)과 같이 미래를 테마로 한 디자이너들은 하이테크 감각의 소재를 즐겨 사용하였으며 이에 대표적인 소재로는 금속, 알루미늄, 우레탄, 형광섬유, 비닐 등을 들 수 있다.

메이크업에서의 미래주의는 사이버 테크노적 이미지, 메탈릭한 소재 외에

31) 김수진,한명숙. 「밀레니엄을 맞이하는 1990년대 패션과 메이크업의 경향」. 복식문화연구, 1999, p89

김교회. 「패션경향에 따른 메이크업에 관한 연구」.대구카톨릭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p15

신소재, 무채색이나 강렬한 원색, 추상적이거나 기하학적인 패턴 등을 그 표현 특징으로 하며, 일반의 유행을 앞선 독창적이고 독특한 메이크업이나 대중성을 무시하고 실험적인 요소가 강한 메이크업 등을 말한다.

주로 사용되는 색상으로는 무채색계열이나 강렬한 원색, 미래지향적인 차가운 계열의 펄(Pearl)이나 글리터(Glitter) 등을 사용하여 강한 질감표현을 하는 경향이 있다.³²⁾

32) 상계논문. p31

Ⅲ. 에스닉과 퓨처리즘의 토탈 메이크업 경향

대표적 패션 이미지에 따른 메이크업 경향은 2장에서 고찰하였다. 이 중 민속적 이미지와 미래적 이미지는 패션쇼에서 가장 다채로운 표현과 이색적인 방법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 두 이미지의 토탈 메이크업 경향을 피부표현과 색조화장, 헤어 및 액세서리 등으로 구분하여 그 특성을 제시하였다.

1. 에스닉

현대는 과학과 매스미디어의 발달로 전 세계의 문화와 정보가 시·공간을 초월하여 각국의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적극적으로 수용, 응용이 가능하게 되면서 서로간의 타문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1978년 12월 중국은 경제개혁·개방정책을 전환점으로 중국은 서방세계에 더욱 그들의 복식과 문화를 알리게 되었고, 서구 패션계에는 ‘오리엔탈리즘(Orientalism)’이라는 새로운 동양풍 문화바람이 일어났다. 19세기 중엽 서구 문화 전반에 일본 취미(Japanism)가 등장하면서 일본의 전통복식인 기모노(Kimono)가 서구패션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였으며 1970년대 후반 일본의 디자이너들에 의해 본격적으로 일본복식의 영향이 독특한 미의식으로 패션에 확대되어 일본풍을 형성하고 있다. 이렇듯 일본복식과 중국 복식은 20세기 복식사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패션에서의 에스닉은 그 민족의 특성을 나타내는 고유의 민속의상이나 이국적인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의상 등으로 이러한 에스닉 이미지에는 오리엔탈리즘, 에조틱, 포클로어의 패션이 포함된다.

오리엔탈리즘 패션은 아시아의 민족적 의상을 가리키는 패션용어로서 1984년에 인도풍의 민족의상으로, 1988년에는 몽고풍으로 유행하였다. 1990년에는

영화 인도차이나의 상연, 1997년 홍콩의 중국으로의 반환 이후 동양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중국풍 패션이 유행하였다.

에조틱 패션은 ‘이국풍’, ‘이국정서’라는 의미로서, 낯설고 색다른 멋을 추구하는 감성 이미지이다. 1970년대와 1980년대 중엽에 크게 유행하였으며, 1994년에는 클로에(Chloe)에 의해 다시 유행하였다. 포클로어 패션은 유럽 지방의 농민 의상, 인디언 의상 등 대자연 속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갖는 소박하고 전원적인 이미지를 패션으로 표현한 것이다.³³⁾

서구 디자이너들은 서구디자인의 획일성에 대한 한계와 싫증으로 신비롭고 이국적인 경향의 동양적인 정신과 미를 선호하게 되었다. 최근의 오리엔탈리즘 경향 패션은 중국과 일본의 전통복식이 재해석되는 형태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한국 또한 1988년 올림픽과 80년대 이후의 경제급성장으로 한국 전통복식을 국제적인 무대에 알리는 기회가 생겼다. 1993년 이후 홍미화, 진태옥, 이신우 등의 디자이너들의 꾸준한 프레타 포르테의 진출로 한국적인 복식미를 세계에 알리고 서구 패션계의 새로운 자극과 관심이 되었다. 현대패션은 포스트모더니즘의 과도기를 겪으면서 무수한 이미지를 생산하고 있고 모든 고정관념의 경계를 해체, 거부하며 역사성과 토속성을 강조하는 양상으로 말미암아 더욱 오리엔탈리즘이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1998년, 1999년에는 크리스티앙 디오르(Christian Dior)와 장 폴 고티에르(Jean Paul Gaultier) 등의 디자이너들에 의해 중국 전통복식인 치파오(旗袍 중)³⁴⁾와 일본 전통복식인 기모노가 그대로 재현, 응용되어 동양적 가치를 세계에 보여주었다. 과거의 전통적 이미지를 현대적으로 재해석을 시도하거나 역사적인 요소를 차용하여 해체하고 재조합하여 전통과 현대의 양면적 가치

33) 정삼호, 김영숙. 『현대 패션 모드』. 서울:교문사, 1996, p125

34) 중화인민공화국성립(1949) 이전에 중국에 널리 착용된 복장. 소위 중국복으로 청조(淸朝:1616~1912)를 지배했던 만주족 고유의 복장. 기(旗)는 청조(淸朝)의 군사행정 제도로 한인(漢人)은 만주인을 기인(旗人)이라 하였고 이들이 입는 복장이라는 의미에서 치파오(旗袍)라고 불렀다.

를 표현하는 복고성의 모방을 볼 수 있다. 이들 디자이너들은 공통적으로 동양풍 의상과 함께 메이크업과 헤어, 소품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총체적 패션으로 선보이고 있다.

새틴 소재, 용과 꽃등의 자수나 프린트, 차이니즈 칼라, 옆이 터진 타이트한 스커트 등 중국풍 모티브들은 서양 복식사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동양적인 모티브이다. 최근의 대표적인 에스닉풍의 패션을 선보이는 디자이너로 존 갈리아노를 들 수 있다. 그는 전 세계 곳곳으로의 여행을 통해 시대와 국적을 초월한 새로운 에스닉을 선보이고 있다. 이밖에도 대나무 잎 프린트와 차이니즈 칼라(collar)를 레드와 네이비 컬러로 매치한 프라다(Prada), 이세이 미야케(Issey Miyake), 알렉산더 맥퀸(Alexander Macqueen) 등이 대표적인 디자이너이다.

메이크업에서 에스닉 이미지는 동양적인 미를 추구하는 경향으로 나타난다. 메이크업에서 동양풍이라 하면, 중국의 지방극 중의 하나였다가 청나라 건륭제 이후 경극(京劇)으로 발전한 대표적인 전통극으로서 전통음악(傳統音樂) · 시(詩) · 창(唱) · 영송(詠頌) · 무용(舞踊) · 곡예(曲藝) · 무술(武術) 등 모든 요소가 집성된 연극예술인경극에서 여역인 화단의 메이크업으로 밝은 핑크색의 피부표현에 검은 눈썹, 붉은 입술, 붉은 아이새도와 블러셔로 완성되는 중국풍 메이크업과 일본 에도시대(1607-1867)에 민중의 연희로 탄생한 가부키인 가(歌, 음악성) · 무(舞, 무용성) · 기(伎, 연기)로 이루어진 총체연극인 가부키 메이크업으로 완벽한 흰 얼굴에 작고 붉은 입술의 일본풍 메이크업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과 일본의 오리엔탈리즘의 메이크업의 특징은 이를 요약하면 다음의 <표1>와 같다.

<표1> 오리엔탈리즘의 메이크업특성

	중국풍 오리엔탈리즘 경향	일본풍 오리엔탈리즘 경향
화장 (Make Up)	·극극의 무대용 페인팅 화장술 이용 ·하얗게 분칠한 얼굴과 작고 오염한 입술, 검은 눈썹으로 중국적 동양미 효과 ·손톱장식과 보조개장식, 화전 등	·일본의 게이샤나 가부키의 분장응용 ·눈꺼풀 전체를 도색할 만큼 두껍게 그린 눈 새도우와 일본 인형을 연상케 하는 하얀 피부에 작고 오목 조목한 눈, 코, 입의 연출 검은 눈썹과 붉은색의 입술 및 아이라이너
머리형태 (Hair style)	·높게 올린 고개와 쌍게 ·쟁반을 겹쳐 놓은 듯 평평하게 높게 올린 스타일 ·양파두(兩把頭), 대립시(大粒翅)라는 머리모양 ·뿔아 올린 머리에 상아비녀로 고정 ·상투머리의 응용과 상계의 변형머리	·일본 전통결혼식인 환곡스타일의 변형으로 층층이 머리와 장식품사용 ·부분머리는 상투머리형으로 묶어주고 나머지 머리는 자연스럽게 길게 흘러내리는 여성스러운 스타일

이밖에도 민속적 패션에 따라서 그 민족의 독특하고 전통적인 메이크업 표현으로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다. 주로 사용되는 색상으로는 희고 창백한 피부표현을 위한 흰색과 붉은 색, 황금색과 검은색 등이 동양적인 느낌을 표현하는데 주로 사용된다.

1) 피부표현

패션 컬렉션에서 나타난 피부표현은 파운데이션과 파우더로 마무리한 일반적인 내추럴 피부와 파우더를 듬뿍 바른 매트한 피부, 촉촉하고 투명한 피부 표현을 위해 파우더 처리를 생략하거나 좀 더 쉬머(shimmer)한 표현을 위해 펄 파우더나 크림, 오일과 바세린 등으로 처리된 피부로 크게 구분되어 진다. 본 연구에서는 에스닉 이미지의 피부표현을 이러한 질감 표현과 동양의 전통적인 흰색과 붉은 색의 피부표현으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1) 매트하고 창백한 피부표현

에스닉 경향에서 주로 사용되는 피부표현으로는 첫째로 질감적 표현으로 <사진1>에서 제시한바와 같이 희고 매트한 표현이다.

2002, 2003 F/W 패션 컬렉션에서 안토니오 마스(Antonio Marras)는 흰 피부에 매트한 질감을 살려 창백한 피부표현을 하고 붉은색의 입술을 강조한 메이크업을 디자인하였다. 2002 F/W 패션 컬렉션에서 크리스티나 페린(Christina Perrin)은 희고 매트한 누드 메이크업에 강한 아이라인으로 눈꼬리만 강조된 메이크업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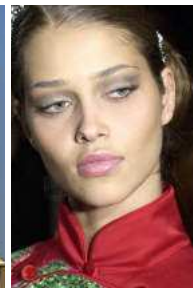
00 F/W 런던
Matthew Williamson



00 F/W 파리
Yohji Yamamoto



00 S/S 파리
Thierry Mugler



01 F/W 파리
Zang Toi



02 F/W 밀라노
Antonio Marras



02 F/W 파리
Christina Perrin



02 F/W 뉴욕
Anna Sui



03 S/S 파리
Isabel Maranta



03 F/W 밀라노
Antonio Marras



04 F/W 파리
John Galliano

<사진1> 매트하고 창백한 피부표현

(2) 촉촉하고 글로시한 피부표현

<사진2>에서 제시한 메이크업은 에스닉에서 동방권이나 아프리카 등 기후가 온난한 지역의 민족성 특징을 보여주는 피부표현이다.

2000 F/W 패션 컬렉션에서 케서린(Catherine)은 밝고 빛나는 촉촉한 피부에 눈은 펄 새도로 화이트하게 표현한 후 아이라인을 강조하였고 치크를 붉게 물들인 메이크업을 표현하였다. 2002 S/S 패션 컬렉션에서 크리스티앙 디오르는 아프리카 머리장식부터 에스키모 레그 워머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모든 문화를 믹스 매치한 컬렉션을 보여주었다.³⁵⁾ 그 중 인도와 아프리카족의 피부를 펄 크림이나 펄 파우더로 오일리(oily)한 피부로 만들었고 인도의 빈디를 응용하여 이마 중앙에 붉은 선과 진하고 강한 눈썹을 그려놓았고 아프리카의 주술적인 페인팅을 글리터를 이용해 표현한 메이크업을 하였다.



00 F/W 뉴욕
Catherine



01 F/W 파리
Frankie Morello



00 S/S 뉴욕
Bill Blass



02 S/S 파리
Christian Dior



02 S/S 파리
Christian Dior



03 S/S 파리
Celine

<사진2> 촉촉하고 글로시한 피부표현

35) 바자, 2001, 12월호

(3) 분칠한 듯 흰 피부표현

색조를 이용한 피부표현으로 <사진3>은 오리엔탈리즘의 전통적인 피부표현인 분칠한 듯 흰 피부표현이다. 주로 일본의 가부키 메이크업을 응용하여 표현한 것으로 흰 피부에 검은 눈, 작고 요염한 붉은 입술표현이 특징적으로 나타났다. 그 중 2002 S/S 패션 컬렉션에서 존 갈리아노(John Galliano)는 가부키 메이크업의 기본에 충실한 메이크업을 하였고, 2003 S/S 패션 컬렉션에서는 머리부터 몸 전체에까지 흰색의 유성페인트를 바르고 백분을 듬뿍 바른 인위적인 메이크업을 디자인하였다.



00 F/W 파리
Michiko Koshino



02 F/W 파리
John Galliano



02 F/W 파리
John Galliano



01 S/S 파리
Christian Dior



02 S/S 파리
Christian Dior



03 S/S 파리
John Galliano

<사진3> 분칠한 듯 흰 피부표현

(4) 황색, 붉은 색의 그을린 듯 한 피부표현

<사진4>는 <사진3>에서 제시한 동양의 전통적인 흰 피부와 대비되는 색조인 황색, 붉은 색으로 표현한 메이크업이다. 주로 안데스나 티베트의 고산지

대나 몽골리안의 그을린 듯한 피부와 얼룩진 피부, 자유분방한 보헤미안의 글래머러스한 피부가 황색의 붉은 색채로 표현되어진다.

2002 F/W 패션 컬렉션에서 브레스리스 앤 셀프(Breathless and self)는 햇빛에 그을린 듯 황색의 얼룩진 피부로 몽골리안 룩을 표현하였다. 2002 F/W 패션 컬렉션에서 알렉산드로 팔롬보(Alessandro Palombo)와 2004 F/W 겐조(Kenzo)는 고산지대 여성의 그을려 얼룩진 피부에 붉은 치크로 강조된 메이크업을 표현하였다. 2002 S/S 패션 컬렉션에서 크리스티앙 디오르는 톤 다운된 붉은 색채의 피부에 강한 아이라인과 립 라인을 강조한 멕시코 룩을 연출한 메이크업을 나타내었다. 2000 S/S 패션 컬렉션에서 안나수이(Anna Sui)와 타야마(Atsuro Tayama)는 내추럴한 붉은 색의 피부에 붉게 물든 치크, 글로시한 아이의 표현으로 글래머러스한 보헤미안 룩을 연출하였다.



<사진4> 황색, 붉은 색의 피부표현

2) 색조 화장(강조 메이크업)

에스닉 경향의 메이크업에서 전통적인 동양적 요소가 강조된 메이크업은 주요 색채가 블랙, 화이트, 레드로 흰색의 피부에 검은 눈썹과 아이라인, 붉은 입술로 컬렉션에서 표현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컬렉션에서 나타난 에스닉 경향의 사진을 분석한 결과 위에서 언급한 색조를 이용하여 눈과 치크, 립 등 특징적인 부위별로 강조되어 표현되었음을 보고 색조와 함께 강조된 부위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1) 강한 아이라인으로 눈을 강조한 메이크업

에스닉 이미지의 색조와 포인트 메이크업은 <사진5>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강한 아이라인이나 새도로 눈꼬리가 강조된 표현이 많이 나타났다. 주로 검은 색의 아이라인으로 길게 눈꼬리를 강조하였고 2002 F/W 패션 컬렉션에서 크리스티앙 디오르는 금속 테이프를 오려 붙여 아이라인으로 표현하였고, 2002 F/W 패션 컬렉션에서 존 갈리아노는 눈에 검은 크림 새도를 발라 스모키한 눈을 표현한 후 눈 주위에 깃털의 오브제를 이용하여 예술적 감각을 표현한 메이크업을 추구하였다.



<사진5> 눈을 강조한 메이크업

(2) 치크를 강조한 메이크업

다음으로 <사진6>에 제시한 것은 광대뼈와 볼 주위를 강조한 치크 메이크업이다. 주로 오렌지계열의 황색과 그을린 피부표현에 주로 사용하는 브론징 컬러, 파스텔 색조의 핑크계열이 사용되었고, 표현 부위는 관자놀이를 비롯하여 볼 안쪽과 아래쪽으로 약간 처진 듯 강조된 표현이 많이 나타난다. 이외

에도 고산지대 여성의 표현은 볼 뿐만 아니라 콧등까지 붉게 얼룩져 표현되기도 하였다. 볼이 지나치게 강조되었으므로 눈과 입술은 누드 톤이나 투명한 핏으로 처리되었다.³⁶⁾

2000 F/W 패션 컬렉션에서 요지 야마모토(Yohji Yamamoto)는 에스키모족의 추위에 발갛게 상기된 볼을 만들어 주기 위해 핑크의 패브릭 패치를 붙이기도 했다.



00 F/W 파리
Celine



00 F/W 밀라노
Etro



00 F/W 파리
John Galliano



00 F/W 파리
Yohji Yamamoto



01 S/S 뉴욕
Matthew Williamson



00 S/S 파리
Atsuro Tayama



01 S/S 파리
Alexander McQueen



02 F/W 밀라노
Alessandro Palombo



04 F/W 파리
Kenzo



04 F/W 파리
John Galliano



04 S/S 파리
Valentin Yudashlein



04 F/W 파리
Kenzo

<사진6> 치크를 강조한 메이크업

36) 보그. 2004, 9월호, p125

(3) 눈과 치크를 연결하여 강조한 메이크업

<사진7>에서 제시된 것은 중국의 경극에서 나타나는 붉은 색채로 눈과 치크를 연결하여 강조한 메이크업이다. 대부분 붉은 핑크계열이 사용되었고 그중 오렌지와 옐로 컬러를 이용한 표현도 나타났다. 예외적으로 2002 F/W 패션 컬렉션에서 크리스티앙 디오르는 그린의 펄 크림 색도로 눈과 치크를 연결한 메이크업을 하였고, 이마 중앙에 중국의 화전을 응용한 금속패치를 붙여서 그로테스크적 이미지로 표현하였다.



<사진7> 눈과 치크를 연결하여 강조한 메이크업

(4) 눈과 입술을 동시에 강조한 메이크업

에스닉 메이크업의 대표적인 모티브중 하나인 일본의 가부키 메이크업은 흰 피부, 검은 눈, 붉은 입술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특징을 살려 아이와 립을 동시에 강조한 메이크업은 다음의 <사진8>에서 제시하였다.



<사진8> 눈과 입술을 동시에 강조한 메이크업

3) 헤어스타일 및 액세서리

(1) 헤어스타일

에스닉의 대표적 헤어스타일로는 동양의 전통적인 땃은 머리를 들 수 있다. <사진9>를 보면 염주를 주렁주렁 달아 땃은 머리, 붉은색의 끈을 엮어 땃는 등 다른 재료를 첨부하여 이용한 스타일이 많았다.



00 F/W 파리
Han Feng

02 F/W 파리
Christina Perrin

04 F/W 파리
Jean-Paul Gaultier

02 S/S 파리
Dries van Noten

<사진9> 땅은 머리

<사진10>에서 제시된 쟁반을 엮은 듯 깔끔하게 올린 머리는 2000 F/W 패션 컬렉션에서 알카디우스(Arkadius)와 2003 F/W 패션 컬렉션에서 안토니오 마스(Antonio Marras)와 같이 오리엔탈적 올린 머리를 이용한 미래의 전사와 같은 이미지이다.



00 F/W 런던
Arkadius

03 F/W 밀라노
Antonio Marras

04 F/W 파리
YSL Rive Gauche

01 S/S 파리
Christian Dior

04 S/S 파리
Valentin Yudashlein

<사진10> 올린 머리

<사진11>은 2000 F/W 패션 컬렉션에서 존 갈리아노는 전통적인 가부키 헤어에 꽃, 구슬꽃이, 실크 등의 액세서리를 이용한 헤어스타일을, 알렉산더 맥퀸은 머리를 하나로 묶은 뒤 나머지 머리를 양옆으로 늘어뜨린 여성스런 스타일을 제시하였다.



00 F/W 파리
John Galiano

01 S/S 파리
Alexander McQueen

01 S/S 파리
Alexander McQueen

<사진11> 가부키 등 일본풍의 헤어스타일

<사진12>의 2004 F/W 패션 컬렉션에서 존갈리아노는 안데스 산맥이나 티벳 고산지대 여성이나 히피풍을 연상시키는 헝클어진 듯한 머리에 가죽 끈 같은 것으로 엮은 헤어스타일, 전통 문양과 색이 들어간 모자 등을 제시하여 다소 유머러스하지만 과거 예멘의 여인들이 머리에 가방을 이고 다니며 길에서 주은 것을 모두 담고 다닌 것을 응용해 땡은 머리카락이나 올린 머리에 모피를 엮고 모자상자, 나이프와 포크 등으로 머리를 장식하기도 하였다.³⁷⁾



02 F/W 밀라노
Alessandro Palombo

02 F/W 파리
Breathless and self

02 F/W 파리
Christian Lacroi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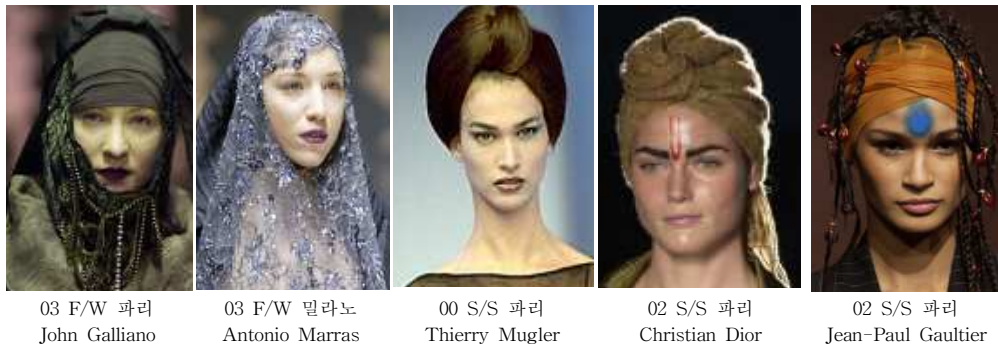
04 F/W 파리
John Galiano

02 F/W 파리
Christian Dior

<사진12> 고산지대여성이나 기타 민족형 헤어스타일

37) 보그. 2004, 9월호, p129

<사진13>은 인도나 동방문화권의 터번 스타일을 제시하였는데 티에르 뤼글러는 터번스타일로 올린 머리를 연출하였다.



<사진13> 터번 스타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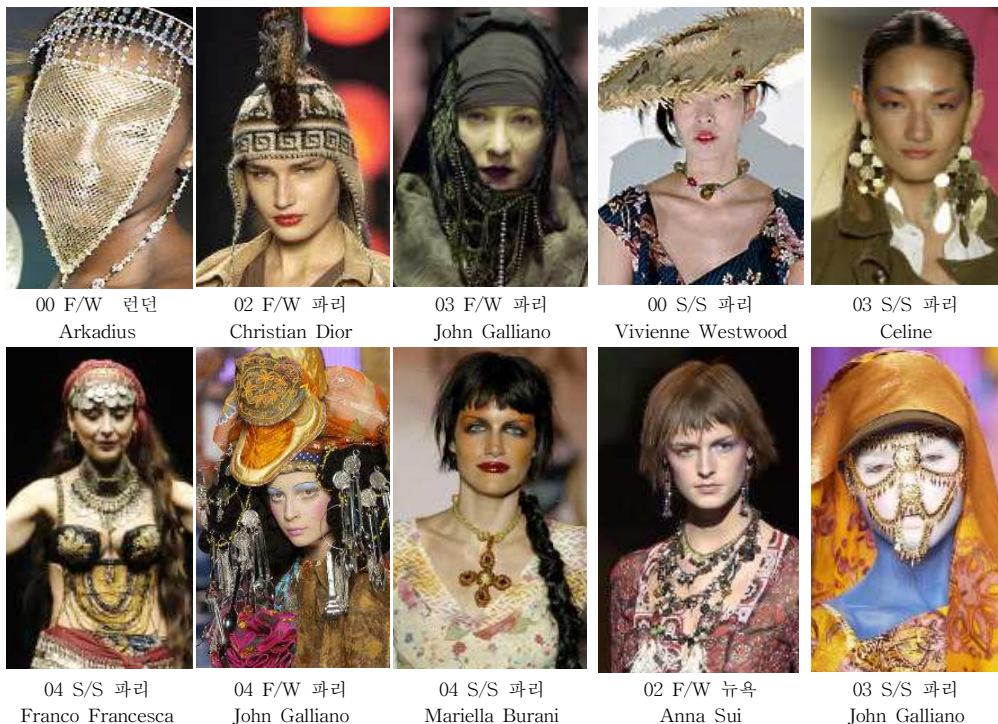
<사진14>에서 제시한 2002 S/S 패션 컬렉션에서 베네데티(Alessandro de Benedetti)는 뱅헤어에 세미 단발형의 컷트로 집시 룩을 보여주었고 크리스티앙 디오르는 아프리카 종족의 과장되어 부풀려진 헤어에 글리터를 이용해 주술적인 표현을 하였다.



<사진14> 뱅 헤어와 아프리카 헤어

(2) 액세서리

에스닉 패션에서 보여진 액세서리는 <사진15>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2000 F/W 패션컬렉션에서 알카디우스(Arkadius)와 2003 S/S 패션컬렉션에서 존 갈리아노는 인도나 아랍권 여성복 소재를 이용한 안면 마스크를 골드와 구슬을 이용하여 켜웠고, 2003 S/S 패션컬렉션에서 셀린느와 2002 F/W 패션컬렉션에서 안나수이는 보헤미안 룩의 커다란 이어링과 목걸이를 연출하였다.



<사진15> 메이크업에 응용된 다양한 액세서리

그밖에도 전통적인 문양과 색상을 이용한 액세서리도 에스닉 이미지를 완성하고 있다.

<사진16>에서 제시된 2002 F/W 패션컬렉션에서 크리스티앙 디오르는 중국의 화전을 금속의 패치로 붙이고 등장하였고 2002 S/S 패션컬렉션에서 장

폴 콜티에르는 인도의 빈디를 블루, 레드, 옐로 등 다양한 칼라로 표현하였다.



<사진16> 화전과 빈디가 응용된 액세서리

4) 변형 및 응용 메이크업

21세기에 이르러 미래 대안적인 패션 제안이 요구되고 있는데 에스닉 메이크업도 미래지향적인 복합적으로 절충된 스타일이 표현되고 있다.

동양적인 형태와 금속이나 소재의 이질감을 교배시켜 테크노적이고 환타지한 이미지를 선보이고 있다. <사진17>은 에스닉 메이크업의 전통성을 벗어난 변형이나 혼합 응용된 스타일을 제시한 것이다.

2002 F/W 패션컬렉션에서 크리스티앙 디오르는 금속 테이프로 붙인 아이라인, 유성크림을 이용한 스모키한 눈의 사방에 흰 깃털을 붙이고 붉은색의 입술로 페인팅하였다. 2000 S/S 패션컬렉션에서 안나 수이와 발렌틴 유다실렌(Valentin Yudashlein)도 황금색의 글리터로 눈을 덮었다. 존 갈리아노는 얼굴 문신에 붉은색의 그라데이션으로 음산하고 그로테스크한 분위기의 에스닉룩을, 03 S/S 패션컬렉션에서는 얼굴과 몸 전체를 페인팅하기도 하였다.



00 S/S 뉴욕
Anna Sui



01 F/W 파리
Frankie Morello



01 S/S 파리
John Galliano



02 F/W 파리
John Galliano



02 F/W 파리
Christian Dior



02 S/S 파리
Christian Dior



02 S/S 파리
Jean-Paul Gaultier



03 S/S 파리
John Galliano



03 S/S 파리
John Galliano



03 F/W 파리
Christian Dior



04 S/S 파리
Valentin Yudashlein



04 S/S 뉴욕
M. Williamson

<사진17> 변형 및 응용 메이크업

이상과 같이 에스닉 패션에 표현된 메이크업들을 살펴보면, 내추럴 메이크업도 표현되기는 하지만 대부분 인위적이며 예술적인 메이크업들이 다양하게 표현되었다. 즉, 패션 컨셉에 따라서 민속적인 느낌을 살려 자신들이 속해있는 민속적 색채가 드러나오는 독특하고 전통적인 메이크업으로 표현하였다.

중국의 경극에서 모티브를 얻은 검정색으로 표현된 눈썹, 이와 대조되는 붉은색 입술 그리고 붉은 아이섀도와 블러셔로 완성되는 중국풍 메이크업과

일본의 가부키에서 모티브를 얻은 완벽한 흰 얼굴에 작고 붉은 입술의 일본 풍 메이크업이 대표적이었다. 이러한 동양적인 느낌의 색상과 유형의 대표적인 것은 붉은색, 검은색 등이며 희고 창백한 피부표현이 특징이다. 이러한 전통성과 함께 에스닉이란 범주 안에서 여러 나라의 다양한 인종과 민족들이 섞여 있는 다원주의 문화가 존재하였다.

또한 동양적인 형태와 금속이나 소재의 이질감을 사용하여 테크노적인 감각을 살려주는 패션이 선보이고 있었다. 포스트모더니즘시대에서 고정관념의 깨어짐과 표현의 무한한 자율성으로 인해 아방가르드한 표현방식이 많이 수용되고 있었다. 즉 메이크업을 통해서도 이 시대가 다양성과 다원주의적 성향과 시기임을 찾아볼 수 있었다.

2. 퓨처리즘

과학과 기술의 발달에 따른 변화된 사회를 반영한 결과 미래주의 패션, 스페이스 에이지(space age) 패션, 키네틱(kinetic)³⁸⁾ 패션, 사이버(cyber) 패션, 테크노 사이버(techno cyber) 패션이라는 이름으로 패션에 나타났다.

패션에서의 퓨처리즘은 기하학적인 형태와 하이테크의 소재로 표현되며, 첨단 과학기술이 도입된 소재를 사용하거나 그런 이미지를 지닌 패션을 통털어 하이테크 패션이라고도 한다. 하이테크는 하이 테크놀로지 ‘첨단과학기술’를 생략한 용어이다.

하이테크 패션으로 상징되는 조형은 구성주의(Constructivism)적 요소를 띄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구성주의는 러시아에서 일어난 추상주의적인 예술 운동으로 현대미술상의 반사실주의 운동 중에서도 가장 극단적인 예술상의

38) 키네틱은 활동적이라는 뜻으로 의복에 플레어, 플리츠 또는 드레이프 등을 사용하여 활동성을 높인 패션이다. 1960년대 중반에 파코라반, 앙드레 쿠레쥬, 피에르가르탱 등의 전위적 작품에서 보여진다. 이러한 작품들은 모더니즘의 한 표현으로서 빛과 운동의 문제가 패션의 영역에 들어왔음을 보여주는 예이다.

한 주의로써 자연의 묘사, 또는 인상적인 표현을 배제하고 주로 기계적, 또는 기하학적 형태 구성에 의해 전혀 새로운 형식의 미를 창조하고 표현하는데 주력했다. 구성주의는 미술과 건축분야에서 시작해서 패션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는데 그 조형상의 표현양식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것이 하이테크 패션이다.

하이테크 소재도 크게 나누어 두 종류로 분류된다. 섬유이면서 알루미늄이나 금속과 같은 광택감이 있는 소재와 반섬유 소재, 이를 태면 금속, 알루미늄, 플라스틱과 같은 소재이다. 이런 소재를 주로 쓴 디자이너는 파코 라반, 티에리 뢰글러 등이다. 그들은 하이테크 패션을 추구하는 대표적 디자이너로 미래파 디자이너로 손꼽힌다. 이세이 미야키도 역시 하이테크 소재를 즐겨 사용한 실험적인 디자인을 많이 하였다.

하이테크 이미지는 무늬를 통해서도 나타낼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컴퓨터 그래픽을 활용한 무늬는 가장 하이테크다운 무늬로 컴퓨터 회로를 무늬로 활용한 알렉산더 맥퀸의 착상도 무늬로 표현된 하이테크 패션의 진수를 보여준다.³⁹⁾ 색상은 주로 밝고 생생한 컬러나 시원한 샤벨 컬러 등을 사용하고 줄무늬 등을 많이 사용하여 활동성을 느끼게 한 것이 특징이다.

19세기 유럽에 만연되었던 세기말 사조는 21세기가 되면서 그 용어가 또다시 되살아나는 경향을 보였다. 패션에서는 기성의 가치와 규칙에 대한 반향이 패션 테마로 떠오르면서 파괴적인 요소가 강한 패션이 선호되고 도덕관념이 붕괴된 퇴폐적인 패션까지 등장하고 있다.⁴⁰⁾

메이크업에서의 퓨처리즘은 사이버·테크노적 이미지, 메탈릭 소재 외에 신소재, 무채색이나 강렬한 원색, 추상적이거나 기하학적인 패턴의 표현 등을 그 특징으로 하며, 일반의 유행을 앞선 독창적이고 독특한 메이크업이나 대중성을 무시하고 실험적인 요소가 강한 메이크업 등을 말한다.

주로 사용되는 색상으로는 무채색계열이나 강렬한 원색, 미래지향적인 차

39) 김종복. 『패션키워드』. 서울;시대, 2002, p40

40) 상계서, p110

가운 계열의 펄이나 글리터 등을 사용하여 강한 질감을 표현하는 경향이 있다.

2000년대 몇몇 디자이너들은 외계인의 이미지를 완성하고 또는 영화 [스타워즈] 시리즈의 별나라 공주의 이미지를 부활시켰다. 지오메트릭한 패턴을 이용해 SF영화나 만화의 ‘미래전사’ 스타일을 신비롭고 초현실적인 스타일로 선보이고 있다.⁴¹⁾

1) 피부표현

퓨처리즘에서 피부표현을 분석한 결과 질감 표현에서 자연스러운 내추럴한 피부, 촉촉하거나 윤기가 넘쳐흐르는 듯 글로시한 피부 그리고 파우더를 듬뿍 바른 인위적인 매트한 피부 등으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1) 자연스러운 피부표현

미래적인 메이크업에서 나타난 대표적 피부표현으로 내추럴한 피부를 <사진18>에서 제시하였다. 모델의 피부와 가장 근접한 컬러를 사용하여 자연스러움을 강조하였고, 만약 타고난 피부 미인이 아닐 경우 먼저 컨실러로 피부의 결점들을 감추고 전체적인 피부톤을 고르게 한다. 다음 빛을 반사시키는 입자가 함유된 파우더를 사용하여 피부가 한층 신선하고 깨끗해 보이도록 한다. 여기에 좀 더 인위적인 누드 룩을 연출하기 위해 복숭아빛 블러셔로 뺨을 살짝 터치해줘야 하는데 과도한 터치는 답답해 보이고 또 너무 적은 터치는 지나치게 창백해 보인다.⁴²⁾

<사진18>의 사진에서는 대부분 누드 베이스에 눈이 강하게 강조되었고 입술은 누드 베이스와 같이 먼저 파운데이션을 가볍게 터치해 입술 톤을 조절

41) 바자. 2004. 8월호, p88

42) 바자. 2004. 11월호, p122

한 후 우유빛 누드 펜슬로 외곽선을 그려주고 그 안에 베이지핑크 컬러만을 발라주었다.



<사진18> 내추럴한 피부표현

(2) 글로시한 피부표현

미래적인 메이크업에서 촉촉하면서 투명한, 혹은 윤기가 넘쳐흐르는 듯 글로시한 피부가 강조되어 나타났다. 여기에 핏기없이 창백하거나 팽팽하고 완벽한 피부표현으로 사이버 퓨처리즘을 완성하여 주었다.

<사진19>는 이러한 글로시한 피부를 제시한 것으로 2000 F/W 패션컬렉션에서 크리스티앙 디오르는 바세린을 발라 윤기있는 피부에 얼룩져 번진 스키키한 눈과 선명한 붉은 입술을 강조하였고, 2004 S/S 패션컬렉션에서 이세이 미야케는 피부에 오일을 듬뿍 바른 누드 메이크업에 메탈 테이프를 붙이고 그 위에 랩을 씌워 빛나는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00 F/W 파리
Christian Dior



00 S/S 파리
Junya Watanabe



00 S/S 파리
GFF



00 S/S 파리
Guy Laroche



01 S/S 뉴욕
Luella



04 S/S 런던
Julien Macdonald



04 S/S 파리
Issey Miyake

<사진19> 글로시한 피부표현

(3) 인위적인 매트한 피부표현

다음 <사진20>에서 제시한 것은 미래 귀족의 화이트한 카리스마와 겨울나를 지배하는 클래식한 러시아 공주처럼 매트하면서 창백한 눈처럼 흰 피부이다. 이것은 주로 피부에 화사한 빛을 주는 화이트와 빛을 반사시키는 입자가 함유된 파우더로 표현되어진다.

고급스럽고 세련된 룩, 또는 신선하고 깨끗한 표현을 위해 피부결점을 완벽하게 커버하여 차갑고 깨끗한 베이스를 만들고 또렷하게 다듬어진 눈매와 눈썹 역시 파운데이션이나 라이트 브라운 컬러의 브로우 파우더를 이용해 원래 색보다 옅은 컬러로 그렸고, 스모키 아이나 딥 컬러의 립스틱을 발라 강렬한 이미지의 이국적이고 미래적으로 표현되었다.

2001 F/W 패션컬렉션에서 빅터 앤 롤프(Viktor & Rolf)는 칠흙같은 검은 베이스에 먼지가 앉은 듯 뿌옇게 파우더가 처리되어 빛을 발하는 눈과 대비되는 메이크업을 표현하였다.



<사진20> 인위적인 매트한 피부표현

2) 색조화장

퓨처리즘 이미지 메이크업에서 색조화장은 패션 컬렉션에서 보여지는 다른 이미지의 메이크업보다 다양한 컬러, 기법, 재료 등을 사용하여 그 표현 방법이 다양하다. 과거와 미래를 오가는 발상 즉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요구되는 미래적인 메이크업을 본 연구에서는 첫 번째로 색상, 두 번째로는 표현에 사용된 재료 즉 소재를 다루었고 세 번째로는 일반적인 메이크업과 차별화된 표현기법을 제시하였다.

(1) 색상

퓨처리즘의 컬렉션에서 색조 메이크업은 색조를 거의 찾을 수 없는 내추럴

색조와 강렬한 원색의 색상대비가 크게 나타났다.

<사진21>은 전체적으로 암울하고 음산한 분위기의 무채색 계열을 제시하였다. 2000 F/W 패션컬렉션에서 올리비에 데이스켄(Olivier Theyskens)와 2003 S/S 패션컬렉션에서 보이드(Boyd)는 밝은 피부에 스모키한 눈, 핏빛 붉은 입술로 음산한 분위기를 강조하였다. 암울한 미래를 암시하는 분위기의 콰르테 가르송(Comme des Garçons)과 이세이 미야케의 메이크업, 빅터 앤 롤프와 보우티카는 흑색 공포 영화 속의 호로퀀처럼 날카로움과 카리스마를 동시에 갖춘 모습의 무채색계열의 메이크업을 선보였다.



00 F/W 밀라노
Amaya Arzuaga



00 F/W 파리
Comme des Garçons



00 F/W 런던
Olivier Theyskens



01 F/W 파리
Issey Miyake



01 F/W 파리
Viktor & Rolf



00 S/S 파리
Olivier Theyskens



02 F/W 파리
Yohji Yamamoto



02 S/S 파리
Fendi



03 S/S 파리
Ann Demeulemeester



03 S/S 런던
Boyd



03 S/S 런던
Boudicca



03 F/W 파리
Fendi

<사진21> 무채색 계열의 색조

<사진22>에서 제시한 것은 강렬한 원색을 사용해 극렬한 색상대비로 드라마틱한 분위기나 환타직한 익스트림(Extreme) 룩을 연출하였다. 2000 F/W 패션컬렉션에서 크리스찬 디오르는 [뱀파이어] 영화 속의 흡혈귀처럼, 2003 F/W 와 2004 F/W 패션컬렉션에서 형광색의 고무합성지와 펠로 과장된 표현을 하였다. 그 밖에도 노랑색으로 추상적이고 기하학적인 패턴의 메이크업을 표현하였다.



00 F/W 파리
Alexander McQueen



00 F/W 파리
Christian Dior



02 F/W 런던
Boudicca



03 F/W 파리
Christian Dior



04 F/W 파리
Christian Dior



01 S/S 파리
Hussein Chalayan



01 S/S 파리
Junya Watanabe



01 S/S 파리
Luella



02 S/S 파리
Guy Laroche



02 S/S 파리
Yohji Yamamoto



00 S/S 파리
Dries Van Noten



04 S/S 파리
Valentin Yudashkin

<사진22> 강렬한 원색

다음으로는 <사진23>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차가운 계열의 색조나 펠 색조를 이용해 미래의 전사 이미지나 테크노적인 이미지를 살리기도 하였다. 2002 F/W와 2003 F/W 패션컬렉션에서 제레미 스콧(Jeremy Scott)은 영화 [스타워즈] 시리즈의 별나라 공주의 이미지를 재현하였고, 2003 F/W 패션컬렉션에서 빅터 앤 롤프는 창백하고 흰 피부에 발그스레한 페일 핑크의 볼을 만들어 나른한 천사를 표현하였다. 2004 F/W 패션컬렉션에서 알렉산더 맥퀸은 모델들의 얼굴 가장자리에 테이프를 붙여 주름살하나 없는 갓난아기의 얼굴을 연상케 하듯 피부를 팽팽하게 당기고 흰색으로 눈꼬리를 약간 올라가게 한 누드룩의 외계인을 등장시키기도 하였다.



<사진23> 차가운 계열의 색조

(2) 신소재의 사용

미래적인 메이크업 표현에서 소재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다양하고 실험정신이 돋보였다. 펄과 글리터는 이보편적이 소재가 되었고 단지 표현방법에 있어 독특하고 예술적이었다.

<사진24>에서 제시한 것은 펄과 글리터를 이용한 메이크업으로 2002 F/W 패션컬렉션의 이세이 미야케와 2001 S/S 패션컬렉션의 크리스티앙 디오르는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금색과 은색의 펄로 그려 놓았고, 새도를 골드 펄로 덮은 줄리앙 맥도널드(Julien Macdonald)와 장 콜로나(Jean Colonna), 타야마(Atsuro Tayama)와 제레미 스콧 등은 실버 펄로 사이보그를 만들었다. 알카 디우스는 메탈릭한 직물을 콧등에 붙여 미래전사 이미지를 연출하였다.



00 F/W 런던
Julien Macdonald



02 F/W 파리
Issey Miyake



01 S/S 파리
Christian Dior



04 F/W 파리
Christian Dior



00 S/S 파리
Jean Colonn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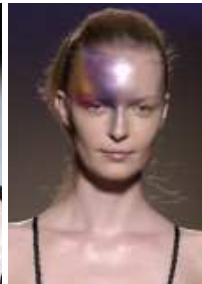
03 S/S 파리
John Richmond



03 S/S 파리
Rafael Lopez



04 S/S 뉴욕
Arkadius



04 S/S 파리
Atsuro Tayama



03 S/S 파리
Jeremy Scott

<사진24> 펄과 글리터

메탈릭한 질감을 살리기 위해 펄과 글리터를 사용했다면 <사진25>에서 제시한 것은 메탈과 합성소재를 이용해 예술적이고 미래적인 이미지를 표현한 것이다. 얼굴 전체에 피어싱을 한 채 등장하기도 하고 얼굴과 몸 전체에 크리스탈을 붙이거나 메탈을 얼굴에 붙여 파괴적인 표현을 하는가 하면 원색칼라의 고무 합성지를 잘라 모자이크식으로 붙여 초현실적인 표현을 하기도 하였다.



01 F/W 파리
Christian Dior



01 F/W 파리
Christian Dior



03 F/W 런던
Boudicca



03 F/W 런던
Blaak



03 F/W 파리
Christian Dior



03 F/W 파리
John Galliano



00 S/S 파리
Alexander McQueen



00 S/S 파리
GFF



01 S/S 파리
Christian Dior



01 S/S 파리
Comme des Garçons



03 S/S 파리
Christian Dior



03 S/S 파리
Christian Lacroix



03 F/W 파리
Christian Dior



03 S/S 파리
Christian Dior

<사진25> 메탈 및 합성소재

컬렉션에서는 자연스러운 표현보다는 미래 여성의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종이를 잘라 붙인 과장된 눈썹과 인위적인 속눈썹을 붙였고, 더 나아가<사진 26>에서 제시한 것은 얼굴에 동물의 털을 응용하거나 레이스와 같은 직물을 이용해 과장되고 신비로운 분위기로 무한한 상상력과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였다.



<사진26> 기타

(3) 표현기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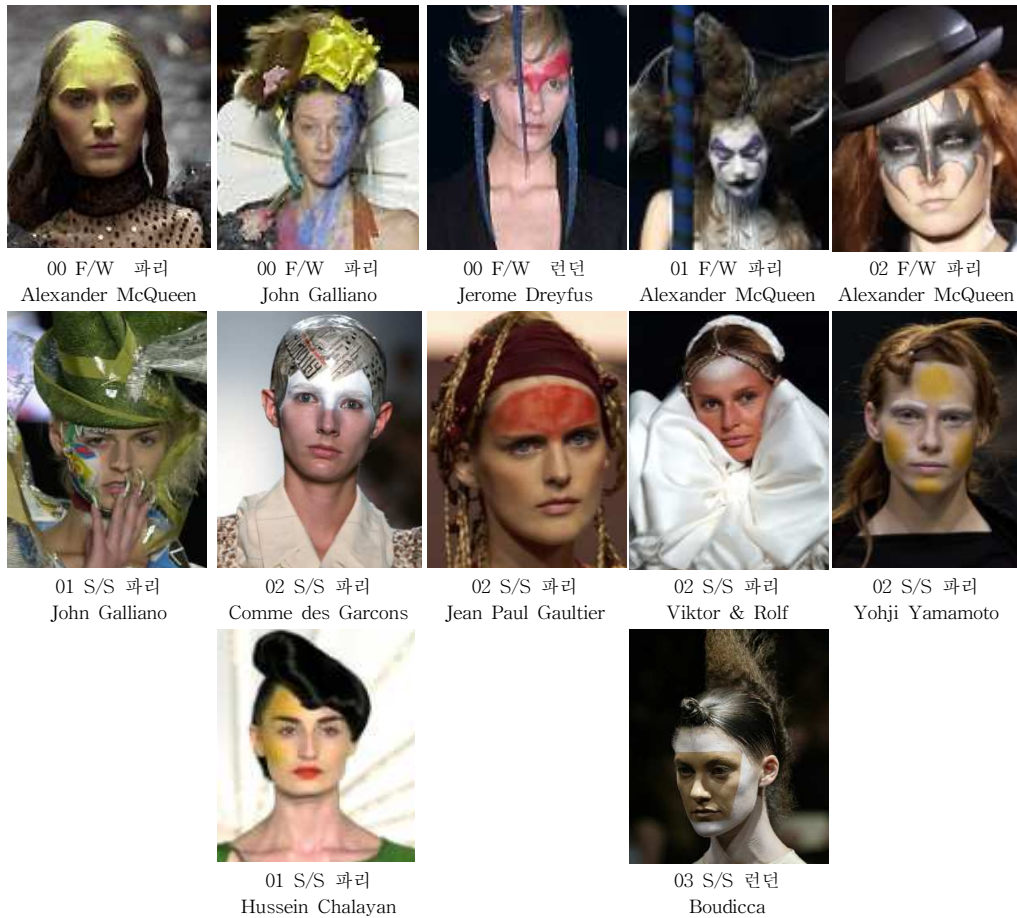
패션컬렉션에서 보여지는 미래적인 메이크업 기법은 일반적인 방법과는 색다른 표현이 많이 나타났다.

<사진27>에서 제시한 것처럼 얼굴에 파우더를 뿌리거나 물감을 붓으로 날리듯 또는 얼룩진 듯 번져놓고 유성칼라를 이용해 뼈에 분장이나 페이스마스크를 응용하기도 하였다.

<사진28>에서 제시한 것은 모델들이 일러스트에서 걸어 나온 듯한 모습을 연출하고 단지 얼굴에 그림을 그리는 메이크업을 벗어나 여러 가지 재료를 이용해 붙이는 콜라주 기법이나 오브제 메이크업으로 변화와 다양성을 다소 과장되고 환상적인 이미지로 보여준 것이다.

2003 F/W 패션컬렉션에서 존갈리아노는 테이프를 잘라 붙인 눈썹과 점, 클리터로 덮은 눈, 심하게 아래로 내려온 인조 속눈썹으로 익살스럽고 크레

이지한 표현을 하였다. 2004 S/S 패션컬렉션에서 이세이 미야케는 비닐 테이프를 그래픽적 패턴으로 붙여 놓았고 그 위에 랩으로 헤어까지 씌웠다.



<사진27> 페인팅을 한 메이크업

<사진29>는 스텐실 기법이나 타투를 제시한 것으로 크리스탈을 붙이거나 스텐실을 이용한 바디타투와 도트형으로 찍어놓은 샤도우 표현등이 다양하게 보여진다. 이와 같이 미래적인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한 메이크업은 적절한 칼라의 배합과 다양한 소재의 사용, 리얼리티 세계에서는 따라할 수 없는 상상력과 아이디어 발상이 요구되어 진다.



00 F/W 파리
Yohji Yamamoto



02 F/W 파리
John Galiano



03 F/W 파리
Christian Dior



03 F/W 파리
Christian Dior



03 F/W 파리
John Galiano



01 S/S 파리
Christian Dior



01 S/S 파리
Comme des Garçons



00 S/S 파리
GFF



03 S/S 파리
Christian Dior



04 S/S 파리
Issey Miyake

<사진28> 콜라주 및 오브제를 사용한 메이크업



00 S/S 파리
Alexander McQueen



02 S/S 파리
Fendi



02 S/S 파리
Guy Laroche



02 F/W 파리
Viktor & Rolf



03 S/S 파리
Yuki Torii



03 F/W 런던
Boudicca



04 S/S 런던
Arkadius

<사진29> 스텐실 및 타투를 이용한 메이크업

3) 헤어스타일 및 액세서리

(1) 헤어스타일

디자이너와 메이크업, 헤어 스타일리스트의 파트너십으로 창조된 결과물들은 그 어떤 예술작품보다도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는 듯하다.



00 F/W 밀라노
Amaya Arzuaga



00 F/W 파리
John Galliano



00 F/W 런던
Jerome Dreyfus



01 F/W 파리
Alexander McQueen



01 F/W 파리
Christian Dior



00 S/S 파리
Yohji Yamamoto



00 S/S 파리
GFF



00 S/S 파리
Guy Laroche



01 S/S 파리
Thierry Mugler



02 S/S 파리
Comme des Garçons



03 S/S 런던
Boyd



04 S/S 파리
Issey Miyake



01 F/W 파리
Issey Miyake



02 S/S 파리
Jean Paul Gaultier



04 F/W
John Galliano

<사진30> 소재를 응용한 헤어스타일

위의 <사진30>에서는 다른 소재를 사용하여 표현한 헤어스타일을 제시한 것이고, <사진31>에서는 미래적인 스타일의 컷이나 컬, 올린 머리 등의 스타일을 제시한 것이다.

<사진30>에서 제시된 헤어스타일에는 땡은 머리카락이나 올린 머리카락은 물론 인조모발을 이용한 것, 비닐 랩, 탬버린, 슈트케이스, 코카콜라를 뒤집어 쓴 괴상한 헤어스타일, 헤어를 가죽이나 메탈 심지어 신문으로 도배를 스타일 등,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많이 보여졌다.

2001 S/S 패션컬렉션에서 티에르 뫼글러는 모발을 대신하여 반짝이는 구슬을 사용하였고, 또 2003 S/S 패션컬렉션에서 보이드는 모발을 이용한 모자의 챙을 만들기도 하였다. 깔끔하게 빗어 넘긴 머리카락에 반짝이는 메탈릭 테이프나 랩을 둘러 사이버 이미지를 완성하기도 하였다.

<사진31>에 제시된 헤어스타일은 헝클어진 머리 기하학적인 업 스타일을 다양하게 표현하였고 알렉산더 맥퀸과 같은 디자이너는 고대 그리스의 조각상에서 영감을 얻어 마치 양털이 돌돌말린 셔링 코트처럼 타이트하게 컬을 말아서 머리카락을 마치 모자처럼 두피에 딱 달라 붙였고 머리카락에 파우더를 뿌려 마무리 하였다. 이러한 방법으로 외계인과 네오 클래식즘을 접목시킨 독특한 컬리 헤어로 선보였다. 기 라로쉬(Guy Laroche)와 알렉산더 맥퀸은 비행접시를 연상케 하는 컷이나 올린 머리, 모자 등 상상 속에서 존재하는 것들을 현실화시켜 표현하였다.



<사진31> 기하학적 및 초현실적 스타일

(2) 액세서리

퓨처리즘 이미지에 등장하는 액세서리는 사이보그를 연상케 하는 도구들이 많이 보여졌다.

소재는 대부분이 메탈릭 소재가 많았는데 <사진32>에서 제시된 2000 S/S 시즌의 알렉산더 맥퀸은 드비어스로부터 수십 캐럿의 다이아몬드를 협찬받아

럭셔리한 미래의 마스크를 디자인하였으며, 2003 S/S 시즌의 알렉산더 맥퀸은 코에 메탈 접시를 붙여 사이보그를 만들기도 하였다. 이세이미야케와 존리치몬드(John Richmond)는 모델에게 안테나가 달린 이어폰을 착용하고 등장시켰고, 2000 S/S 시즌 준야 와타나베(Junya Watanabe)는 플라스틱과 와이어 등으로 신비롭고 초현실적인 룩을 완성하였다.



<사진32> 액세서리

4) 혼합성과 초현실적인 표현

컬렉션에서 나타난 퓨처리즘은 여러 이미지를 미래적으로 해석한 혼합성과 초현실적인 표현이 많이 나타났다. 그 중 <사진33>은 오리엔탈리즘과 혼합된 표현을 제시하였고, <사진34>는 동물이나 인간의 변형을 형상화한 스타일을 제시하였다.

<사진33>의 2003 F/W 시즌의 알렉산더 맥퀸과 크리스찬 디오르는 동양의

붉은 색을 이용한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로 영화 [스타워즈] 시리즈의 별나라 공주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비비안 웨스트우드에는 머리에 뿔을 가진 에스닉 전사로, 2000 S/S 시즌의 알렉산더 맥퀸은 암울한 느낌의 의상에 동양적인 문양의 크리스탈로 몸에 문신을 하기도 하였다.



03 F/W 파리
Alexander McQueen



03 F/W 파리
Christian Dior



04 F/W 파리
Vivienne Westwood



04 F/W 파리
Christian Dior



00 S/S 파리
Alexander McQueen



01 S/S 파리
Olivier Theyskens



02 S/S 파리
Jean Paul Gaultier



03 S/S 파리
Jean Paul Gaultier



04 S/S 뉴욕
Arkadius



04 S/S 파리
Valentin Yudashkin



01 S/S 파리
Hussein Chalayan

<사진33> 오리엔탈리즘과의 혼합된 미래주의 메이크업

<사진34>는 동물로 변화되어 가는 인간이 아니면 그 반대일 수도 있는 동물의 뿔이나 가면 등으로 초현실적인 표현을 한 것이다. 2004 F/W 패션컬렉션에서 빅터 앤 룰프는 밤비니에서 영감을 받아 흰색로 그린 아이메이크업

과 누드 입술, 그리고 눈에는 마스크라를 발라 작은 삼각형으로 만든 긴 인조 속눈썹을 세 가닥 붙여서 포인트를 주었다. 덩불처럼 부풀린 머리엔 작은 뿔이 장식되어 밤비니 룩을 완성해 주었다.



00 F/W 파리
Thierry Mugler



02 F/W 파리
Alexander McQueen



04 F/W 파리
Viktor & Rolf



04 F/W 파리
Vivienne Westwood



03 S/S 런던
Boudicca

<사진34> 동물 및 변형된 미래주의 메이크업

이상과 같이 미래적 패션에 표현된 메이크업을 살펴보면, 내추럴한 메이크업과 실험적 요소가 강한 인위적인 메이크업 등이 다양하게 표현되는 경향이 있었다.

피부표현은 거의 색감이 느껴지지 않는 자연스러운 피부, 글로시한 피부, 인위적인 매트한 피부 등 다양하게 표현되었다.

눈썹이나 얼굴형태를 무시한 독창적이고 독특한 메이크업과 강렬한 원색을 사용하거나 펄과 글리터를 사용해 강한 질감표현을 한 메이크업이 부분적으로 보였으며, 미래적 이미지와는 반대되는 자연스러운 메이크업과 대중성을 무시한 실험적 요소가 강한 미래지향적인 메이크업이 대등하게 표현되었다.

이러한 메이크업과 함께 독창성과 실험적인 요소를 갖춘 헤어와 액세서리로 토탈 패션으로 퓨처리즘을 완성하고 있다.

3. 에스닉과 퓨처리즘의 토탈 메이크업의 특성 비교분석

이상에서 살펴본 에스닉과 퓨처리즘의 패션컬렉션에서 나타난 메이크업 경향을 제시한 것을 그 특성을 정리하여 서로 간의 연계성과 차이점을 비교 분석하였다.

1) 피부표현의 특성 비교

먼저 피부표현에서 에스닉의 특성은 첫째, 질감표현으로 매트하고 창백한 피부, 글로시한 피부로 다 민족의 특성을 살려 표현이 되었고, 둘째, 동양의 특성을 표현한 색감 표현으로 분칠한 듯 흰 피부와 그을리고 얼룩지게 표현된 황색의 피부가 나타났다.

퓨처리즘의 피부표현은 자연스러움을 극대화하여 강조한 누드피부와 글로시한 피부, 인위적인 매트한 피부로 다양하지만 강한 질감 표현으로만 강조되어 표현되어졌다.

2) 색조화장의 특성 비교

에스닉의 색조화장 경향은 동양의 전통적의 색조인 흑·백·적을 주조색으로 하여 강조점을 눈·볼·입술로 구분지어 표현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반하여 퓨처리즘의 색조화장은 암울하고 음산한 분위기의 무채색 계열과 환상적이고 드라마틱함을 표현한 강렬한 원색의 색조가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색조와 함께 다양하고 실험적인 신소재의 사용과 독창적이면서 예술적인 페인팅, 콜라주, 스텐실 등의 다양한 표현기법으로 초현실적인 기법이 특징적으로 보여 졌다.

3) 헤어스타일 및 액세서리의 특성 비교

헤어 및 액세서리의 표현에서 에스닉의 경향은 오리엔탈리즘의 전통적인 올린 머리와 뿔은 머리 등 민족적 특징을 주요 모티브로 사용하였고, 구슬이나 골드, 깃털을 이용한 이국적이고 에스닉한 액세서리로 표현하였다.

이와 달리 미래적인 소재와 기하학적인 스타일을 주로 한 퓨처리즘은 메탈과 합성소재 등을 이용하여 초현실적이면서 사이버적이고 테크노적인 이미지를 강하게 표현하였다.

4) 표현 방법의 특성 비교

다음으로 표현 방법에 있어 변형과 혼합성을 표현한 특징이 나타났는데 에스닉은 전통적인 색조와 펄과 글리터를 이용한 질감의 변형이 보여 졌고 과거와 미래를 혼합한 신소재의 사용과 표현 기법을 응용한 미래지향적인 스타일이 대표적이었다.

퓨처리즘은 오리엔탈리즘을 미래적으로 해석하여 복합적이면서 절충된 표현과 함께 동물이나 초현실적인 변형과의 혼합성을 특징적으로 보여주어 다양성과 다원주의적인 패션성향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에스닉과 퓨처리즘의 토탈 메이크업의 특성을 다음의 <표 2>에서 요약하여 제시하였다.

〈표 2〉 에스닉과 퓨처리즘의 토탈 메이크업의 특성 비교

	에스닉	퓨처리즘
피부표현	· 질감 표현의 매트하고 창백한 피부, 글로시한 피부 · 색감적 표현으로 분칠한 듯 흰피부와 황색톤의 피부	· 다양하고 강한 질감표현으로 자연스러움을 최대화한 누드, 글로시, 인위적인 매트한 피부
색조화장	· 얼굴 부위별로 포인트를 눈·볼·입술로 구분지어 강조하고 흑·백·적의 색조 메이크업	· 암울하고 음산한 무채색의 색조 · 환타지적이고 드라마틱한 분위기의 강렬한 원색 · 미래적인 신소재 초현실적표현 · 독창적이고 아트적인 페인팅, 콜라주, 스텐실 등의 표현기법
헤어스타일 및 액세서리	· 일본의 중국의 전통적인 업두 및 땃은 머리 등 민족적 특징을 표현한 헤어 · 구슬이나 골드와 깃털을 이용한 이국적 액세서리	· 미래적인 소재의 사용과 기하학적인 스타일위주의 헤어 · 사이버 퓨처를 완성해준 신비롭고 초현실적인 액세서리
변형 및 혼합	· 전통적인 색조와 질감을 변형 · 과거와 미래를 혼합한 신소재 및 표현기법의 응용	· 오리엔탈리즘을 미래적으로 해석한 혼합성 · 동물과 혼합된 변형
특성	· 전통적인 요소를 모티브로 하여 현대 패션에 접목시켜 역사적인 회귀경향 · 에스닉이란 범주 안에서 여러 나라의 다양한 인종과 민족들이 섞여 있는 혼합성 · 21세기에 이르러 미래 대안적 패션 제안의 요구로 절충된 미래지향적 표현	· 눈썹이나 얼굴형태를 무시한 독창적이고 독특한 표현 · 자연스러움과 대중성을 무시한 실험적 요소 · 오리엔탈리즘 등 다른 패션을 미래적으로 해석한 혼합성 · 변형, 외계인등 생태학적 미래의 초현실적표현

IV. 결론

본 연구에서는 패션을 의상에 국한시키지 않고 메이크업과 헤어 및 장신구에 이르는 토탈 패션으로 인식하여 메이크업을 자신의 브랜드를 어필하고 디자이너의 예술적 감각과 자신의 패션을 표현하는 총체적인 복식의 하나의 도구로서 부각되고 있음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 방법으로 2000년대 초반의 패션컬렉션에 나타난 패션 트렌드를 문헌, 인터넷자료, 패션잡지 등을 통하여 알아보고 여러 패션 트렌드 중 두드러진 특징을 보인 에스닉과 퓨처리즘을 중심으로 그에 따른 다양한 토탈 메이크업 기법들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하여 패션쇼에 나타난 메이크업의 양상은 무제한적인 미의 수용으로 기존의 전통적인 미의 관념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주관적인 개성표현과 미적 가치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아보고 또한 이를 더욱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구체적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에스닉 경향에 따른 메이크업 표현은 대부분 그 민속의 독특하고 전통적인 메이크업이었는데, 특히 중국의 경극을 모티브로 한 중국풍 메이크업과 일본의 가부키 메이크업을 응용하여 표현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민속주의 패션에 표현된 메이크업은 가장 다채로운 메이크업이 표현되었으며 다민족의 전통적인 특성을 효과적으로 살려 그 이미지를 극대화하였다.

첫째, 피부표현은 매트하면서 창백한 피부에서 그을린 황색피부와 글로시한 피부, 분칠한 듯 흰 피부 등 다민족의 특성을 표현하였다.

둘째, 강조 메이크업은 눈꼬리를 강조한 아이 메이크업과 뭉친 듯 얼룩지게 표현한 치크 강조와 경극을 응용한 눈과 치크를 연결한 메이크업, 작고 요염하게 표현된 붉은 입술 메이크업 등에서 오리엔탈적 요소가 특징적으로

나타났다.

셋째, 헤어스타일 및 액세서리는 땡은 머리와 올린 머리의 형태로 또는 중국의 화전과 인도의 빈디를 응용한 스타일 등 다민족의 다채로운 표현이 나타났다.

넷째, 변형 및 응용된 메이크업 형태는 미래지향적인 스타일과 절충되어 색채의 변형과 펄을 이용한 질감의 변형과 다양한 소재의 변화로 무한한 자율성과 괴이한 표현방식도 나타났다.

다음으로 퓨처리즘 경향에 따른 메이크업 표현은 대중성을 무시하고 실험적 요소가 강하게 나타남으로써 미래지향적인 패션의 이미지를 더욱더 돋보이게 하였다. 따라서 눈썹이나 얼굴형태를 무시한 독창적이고 독특한 메이크업과 강렬한 원색을 사용하거나 펄과 글리터를 사용해 강한 질감표현을 하였다.

첫째, 피부표현은 자연스러움과 완벽한 피부를 표현한 누드베이스의 내추럴한 피부에서 윤기와 건강미를 극대화한 글로시한 피부, 화이트하면서 창백한 인위적인 매트한 피부로 강한 질감 표현을 주로 하였다.

둘째, 색조화장은 암울하고 음산한 미래를 암시하는 무채색계열의 표현과 드라마틱한 강렬한 원색의 사용, 전사의 이미지나 테크노적인 차가운 계열의 색조가 나타났으며, 다양한 신소재의 사용과 실험적인 표현 기법이 나타났다.

셋째, 헤어스타일 및 액세서리는 독특한 소재를 이용한 헤어스타일과 기하학적인 스타일을 표현한 헤어스타일이 나타났으며, 액세서리는 사이버 퓨처리즘을 표현한 메탈과 신비롭고 초현실적인 스타일이 많이 보여 졌다.

넷째, 다른 패션이미지와 혼합하여 미래적으로 해석한 스타일 중 동양의 색조나 문양을 응용한 스타일과 동물과 혼합된 변형 스타일의 표현이 특징적이었다.

패션 트렌드에 따른 메이크업 표현의 특징은 1990년대 이후 오늘날까지 강세를 띄고 있는 내추럴 메이크업이 자연주의 패션경향에서 뿐만 아니라 에스닉과 퓨처리즘에서도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또한 실험적인 측면이 강한 과장된 메이크업과 예술성을 추구하는 메이크업이 에스닉과 퓨처리즘에서 다양하게 나타나는 경향이였다. 이를 통하여 패션 트렌드와 메이크업 표현이 긴밀한 연계성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늘날 현대 패션에서는 민속적 요소가 가미된 동양풍의 의상이 여러 디자이너들에 의해 발표되고 있으며, 이를 예술적 감각으로 승화하여 패션시장을 장식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80년대 이후로 세계 패션시장에 진출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민속적 요소의 부각은 미비한 실정이다. 한국의 역사성과 토속성의 개발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는 메이크업을 토탈 패션의 한 요소로서의 이해하고, 메이크업을 총체적 예술로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패션 컨셉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메이크업 표현의 기틀을 마련하였다는데 연구의 의의를 둔다.

앞으로 본 논문에서 자세하게 다루지 못한 토탈 패션의 개념으로서의 메이크업에 연계된 소재와 표현 기법에 대해서 깊이 있는 연구가 요망된다.

참고문헌

1. 김종복, 패션키워드, 도서출판 시대, 2002
2. 안병기. 패션트렌드 정보기획론. 학문사, 2000
3. 이은영. 패션마케팅. 교문사, 1995
4. 이호정. 패션디자인. 교학연구사, 1999
5. 정삼호·김영숙, 현대 패션 모드, 교문사, 1996
6. 조규화, 복식사전, 경춘사, 1994.
7. 채금석. 패션디자인 실무. 교문사, 1999
8. RFI. 패션산업정보. RFI, 2000
9. A.Jarnow, Jeannette, Guerreiro, Mirian&Judelle, Beatrice. 『Inside the Fashion Business』. 복식산업론. 김문숙 옮김. 경춘사, 1990
10. Frank H. Mahnke. 『Color, Environment, and Human Response』. 최승희 외 역, 국제, 1999
11. Gini Stephens Frings. 『Fashion from concept to consumer』. New Jersey :Prentice Hall Career & Technology.
12. Hannelore Eberle. 『Clothing Technology』. 금기숙 외 역. 의류과학과 패션. 교문사, 2000
13. Horn & Gurel 의복: 제2의 피부. 이화연 외 옮김. 까치, 1992
14. Jackson, C., 『Make-up Book』. New York: Ballantine Books. 1987
15. Jewell, D. L., 『Making Up by REX』. New York: Clarkson Potter Publish Company. 1986.
16. 강병석, “토탈 패션으로써의 메이크업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1984
17. 김교회, “패션경향에 따른 메이크업에 관한 연구-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컬렉션을 중심으로-”. 대구가톨릭대학교 디자인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18. 김정화, “현대 해체주의 메이크업 표현에 관한 연구 : 1990년대 후반 컬렉션을 중심으로” 대구가톨릭대학교 디자인대학원, 2002
19. 김하니, “1990년대 후반 패션 컬렉션에 나타난 색채의 특성”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20. 안향신, “현대 복식에 표현된 색채 상징에 관한 연구-1990년대 색채 경향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21. 양진희, “현대 메이크업에 나타난 레트로 경향” 건국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22. 조은별, “20세기 화장문화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23. 곽태기 · 김은정, “중국, 일본, 한국의 오리엔탈리즘패션에 나타난 토탈패션(Total Fashion)에 관한 연구” 복식, Vol.52 No.5, 2002
24. 김경순, “세기말에 나타난 메이크업의 경향” 한국미용학회지, Vol.6 No.3, 2000
25. 김수진 · 한명숙, “밀레니엄을 맞이하는 1990년대 패션과 메이크업의 경향”, 복식문화연구, Vol.7 No.6, 1999
26. 이봉덕 · 양숙희, “파코라반(Paco Rabanne)작품에 표현된 다원주의” 복식문화 연구, Vol.5 No.3. 2001
27. 이봉덕 · 양숙희, “21세기로의 전환기에 표현된 패션의 미학적 특성” 한국 의류학회지, Vol.7 No.5, 2002
28. 조규화 · 신경섭, “무대의상의 의미전달에 관한 연구-중국경극(Peking Opera)을 중심으로” 한국복식학회 Vol.6 No.4, 1998
29. 채금석 · 변영희, “현대 메이크업에 표현된 추(醜) 이미지에 관한 연구-색채 표현을 중심으로” 한국복식학회, Vol.7 No.6, 2004
30. Vogue Korea, (2000. Jan.~2004. Nov.)

31. Harper's Bazaar Korea, (2000. Jan. ~ 2004. Nov.)

32. [http:// www.firstview. com](http://www.firstview.com)

ABSTRACT

The Total Make-up Based on Fashion Trend

- in Light of the Fashion Collection of Early 2000's

Kim, Mi-Jung

Major in Make-up Art

Department of Fashion Art

Graduate School of Art, Hansung University

This study is designed to explain how the fashion industry, which develops its own brand and broadens into areas that include clothing, make-up, hairstyles and accessories, is recognized as a comprehensive art made from the simple work of a designer. Make-up is learned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elements of the fashion trend shown in the fashion collections. Make-up can also make fashion concepts more successful with other elemen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offer more creative and unique ideas of the use of make-up.

The research on fashion collections, trends and make-up is surveyed from related archives and images about fashion trend are collected via the internet.

One of the most surveyed items is ethnic styles, which combines the forms of the past and future as well as the styles of the orient and west. The other is futurism fashion using irregular and geometrical forms along with up-to-date materials applying post-modernism.

The finding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ethnic fashion emphasizing unique and exotic flavors represents naive and pastoral images not only from traditional Asian costumes, but also from primitive African costumes. Ethnic Makeup also appears in skin expressions such as matte and pale finish. These expressions highlight multiracial characters, burned yellow, and painted white skin. Point make-up has a strong, well-defined eye-line just like the mood of the Orient – a blushed cheek and small, red, lip expressions. Hair-styles and accessories make a variety of multiracial expressions including styles from the cultures of Africa, India, and the orient. As well as giving inspiration to today's fashion designers, studying traditional clothing has significance in many other aspects.

Secondly, futurism fashion features experimental designs using the high-tech materials such as vinyl, aluminum, fluorescent textiles. etc. with geometric forms. That is, the styles were altered by an optically dynamic approach to material design and colour, combined with irregular and geometrical form in the styling of everyday clothing.

Futurism make-up expression is focused on natural pure skin as well as glossy and artificial matte skin tones that are highlighted.

Shading was experimented with by drawing achromatic colors of white and black, as main colors, on both eyebrows or along the face pattern. Later, strong and bright colours were used in combination with irregular patterns and new styles in tailoring, that visually broke the traditional form of clothing.

Geometrical and surrealistic styles are also appearing in hair styles and accessories, and are featured with futurism expression as well as mixed transforms by using oriental elements.

